

은빛 초

옛 기록 모아
호남학 숨겨진 사료다



2025년 12월

3호



김정현 작 <유달청담 儒達淸嵐> 한지에 수묵담채, 103.5×129.5cm, 개인 소장

전남 영암에서 태어난 소송小松 김정현은 허백련에게 전통회화를 배운 후, 일본 가와 바타미술학교[川端畫學校]를 다녔다. 해방 후에는 서울로 이주하여 백양회(白陽會) 창립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작품은 넓게 펼쳐진 다도해와 높게 선 유달산을 한 화면에 담고 있다. 능숙한 필치로 산과 섬들을 실경에 가깝게 표현하였다.

登儒達山

유달산에 올라

金文鈺(김문옥 1901~1960)

天風一嘯倚危樓

한줄기 바람 불때 높은 누각에 기대니

石氣崢嶸接素秋

드높은 바위 기상 맑은 가을에 서려있네

海上青山千萬里

바다 위 푸른 산들 천만 리 줄지어

不知何處是瀛洲

어느 곳이 영주산인지 알 수가 없구나

김문옥(金文鈺) : 1901~1960. 일제 강점기 유학자. 자는 성옥(聖玉)이고, 호는 효당(曉堂),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1901년 9월 9일 경남 합천군 용주면 이사리(伊沙里)에서 출생했다.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학맥을 이어받은 울계(栗溪) 정기(鄭琦, 1878~1950)의 문인으로, 27세 때인 1927년 10월에 스승 정기를 따라 구례 토지면 오미리(五美里)로 이주하였다. 저서로는 <효당집>이 있다.

※ 출처 「호남국학종합DB」(<https://db.hiks.or.kr>)

옛 기록 모아 호남학 숨결 살리다

‘은빛’ 3호 (통권 3호)연간
 발행일 2025년 12월 20일
 창간일 2023년 9월 22일
 발행처 한국학호남진흥원
 발행인 홍영기
 기획·편집 조미은, 엄찬영, 이상수
 주소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소촌동)
 전화 062-603-9600
 누리집 www.hiks.or.kr
 디자인·제작 엔터
 표지 멧글씨 강병인



표지 사진
 누룩곰팡이가 수북이 자리 잡은 남평 주조장의 100년 된 술독.

한국학호남진흥원 소식지의 제호 ‘은빛’에 ‘온전한 호남학 연구로 빛나는 미래를 열겠다’는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은빛’과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ISSN 3022-0432
 9-773022-043003-35



차 례

- 2 ‘은빛’을 여는 시와 그림
 登儒達山 유달산에 올라 - 김문옥
- 6 ‘은빛’ 제언
 ‘호남학 아카이브’ 단단한 디딤돌 세 가지
- 8 특집
 옛 기록 모아 호남학 숨결 살리다
- 10 호남 국학 자료 10만 점 수집, 그 회고와 전망
- 16 남도의병 유물과 기록
- 22 데이터로 그리는 문화자원의 미래
- 30 고문헌 기탁 문중과 만남
 고문헌 기탁, 곡성 영월엄씨 문중 금산서사(金山書舍) 경와(敬窩) 엄명섭(嚴命涉) 선생 종가



- 34 호남의 문화 자산 - 남평주조장
- 34 생명이 발효한 나주의 품미, 남평주조장
- 36 역사와 스토리의 수장고, 남평주조장

- 40 사료 돌아보기
 조선시대 살인사건 조사보고서 검장(檢狀)과 시장(屍帳)

- 44 선인의 지혜 - 음식 조리서
 옛 조리서에 깃든 맛의 기억

- 48 호남학 산책 - 위로와 치유의 문화
 뜻밖의 죽음을 달래고 기억하며 재난을 품어내는 공동체의 측은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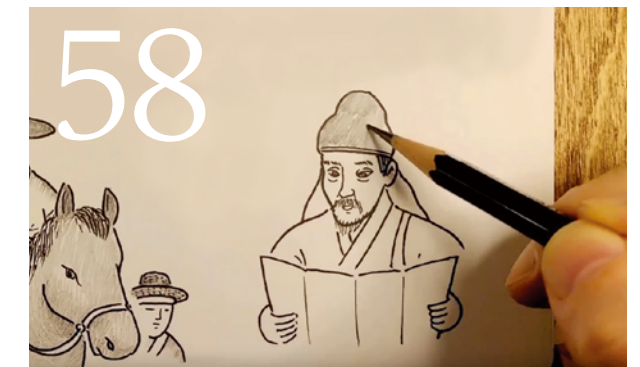
- 54 은빛 화제
 책으로 만나는 나주 누정

- 58 호남 기록유산 수집·연구·소통
- 60 먼지 앉은 호남 기록 유산 소중한 문화 유산으로 재탄생
- 64 옛 기록을 한데 모으고, 소통하며
 오늘의 의미를 찾는 다양한 노력

- 66 한국학호남진흥원 소식
 전라도 역사이야기 특별강연, 황현필 강사 초청
 영광 전주이씨 병사공 종가 조명 학술대회
 UC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과 업무협약 체결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개원 8년 만에 한국학 자료 10만 점 수집 간담회 개최
 서적, 간행물, 자료집 발간

- 69 함께하는 호남학 연구
 광주문화재단
 전라남도문화재단
 전남연구원
 광주연구원

- 71 한국학호남진흥원 ‘기증·기탁 안내’



‘호남학 아카이브’ 단단한 디딤돌 세 가지

1592년 임진왜란이 시작된 지 20일 만인 5월 3일 왜군은 한양을 점령했다. 5월 초 전라도 전주로 왜군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나돌자 정읍의 선비 안의(安義)와 손홍록(孫弘祿)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솔들을 데리고 전주사고(史庫)로 달려갔다. 왜군은 북진하면서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된 경상도의 성주사고, 충청도 충주사고, 한양의 춘추관을 불태웠다. 이제 남은 곳은 전라도의 전주사고뿐이었다. 당시 안의는 64세, 손홍록은 56세의 노인들이었으나 이들은 실록 64권짜를 소달구지에 싣고 정읍 내장산 용굴암으로 옮겼다. 그리고도 안심이 안돼 다시 더 깊은 은봉암, 비래암 등으로 옮겨 380여 일간 지켰다. 조선왕조는 전쟁이 끝난 뒤 전주사고본(本)을 복사하여 전국 다섯 곳에 다시 보관하게 됐다. 그 덕분에 ‘조선왕조 블랙박스’는 후일 역사연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반면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 1980년 5·18때 광주지역 두 신문사 기자들은 열심히 취재에 나서 기사를 작성하고 사진촬영도 했다. 그러나 당시 전남도청에 설치된 계엄사령부 보도검열관실이 인쇄 직전에 제출된 신문대장을 검열하면서 그들에게 불리한 기사들을 붉은 색연필로 가차없이 그어 삭제토록 했다. 10일간의 항쟁이 끝나자 보안사령부가 갑자기 폭동 가담자들의 체증자료로 쓰겠다고 신문사로 사진을 수집하러 온다고 했다. 기자들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진들을 회사에서 피신(?)시켰다. 이후 전두환이 7년간 집권하면서 많은 자료들이 신문사로 돌아오지 않았다. 보도검열관실에서 붉은 줄로 사정없이 삭제한 뒤 ‘보도검토필’ 도장을 찍어주었던 신문대장 역시 그해 12월 1일 언론통폐합 조치로 신문사가 합쳐지면서 대부분 사라졌다. 다행히 전남매일신문 1980년 6월 2일자 1면에 실릴 김준태 시인의 ‘아! 광주여 영원한 십자가여’ 시를 붉은 색연필로 난도질 한 신문대장이 남아 당시의 무자비했던 검열실태를 확인해 주었다. 기록문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전문 수장 공간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올해로 9년째를 맞았다. 우리 진흥원의 특징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일한 산하기관이라는 것이다. 또 ‘호남학’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유일한 공공기관이기도 하다. 앞으로 대표적인 ‘호남학 아카이브’가 되려면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서

울의 한국학중앙연구원, 경상북도 안동시의 국학진흥원과 함께 3대 ‘지역학’ 학술연구기관이다. 그만큼 호남의 역사를 조사·수집·보존·연구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그러나 독립건물을 가지고 있는 다른 두 기관과는 달리 우리 진흥원은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독립건물 확보에 진력(盡力)해야 한다. 특히 호남지역의 종가, 명문가, 서원, 사우 등에 소장된 고문헌 자료·일기·그림·글씨 등 다양한 기록유산들을 수집·보존하려면 완벽한 수장고가 절대 필요하다. 현재처럼 기존 건물을 개조한 불안정한 수장고로는 문화유산을 선뜻 기증·기탁받기 어렵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 광주에는 예술의 도시(藝鄉)답게 많은 미술관과 전시관들이 있으나 완벽한 수장고가 부족하다. 따라서 ‘공동수장고’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 공동수장고에서 여러 예술기관의 작품들을 보관하고, 일반인의 관람통로도 설치한다면 흥미로운 관람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또 작품을 공동으로 수장하면 공공기관의 우수 관리 사례로 선정돼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창조적 상상력

둘째, 창조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조사·수집·보존·연구만 할 게 아니라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OSMU(One Source Multi Use)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의 전통을 배경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케데헌이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듯 흥미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한국판 레미제라블, 닥터 지바고, 전쟁과 평화가 태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가사문학 고향인데다 서민의 애환과 걱정을 간직해온 호남의 역사이기에 더욱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뿌리 존중의 진정성

셋째, 우리 진흥원의 역사를 자세히 정리하는 일도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단법인 승인을 받기까지는 지역 민간단체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성사되지는 않았으나 초기에는 광주·전남·전북이 함께하려고 했다. 명칭을 정하는 데도 갈등이 있었다. 초기에 나섰던 분들이 이제 80줄을 넘어섰으므로 그분들로부터 서둘러 자문을 받아 설립과정을 정리해야 한다. ‘족보’가 있어야 행정기관도 우리 진흥원을 무시하지 않는다. 두 광역자치단체 관리는 좋은 여건인데도, 역사를 소홀히 해 후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모두 적극 나서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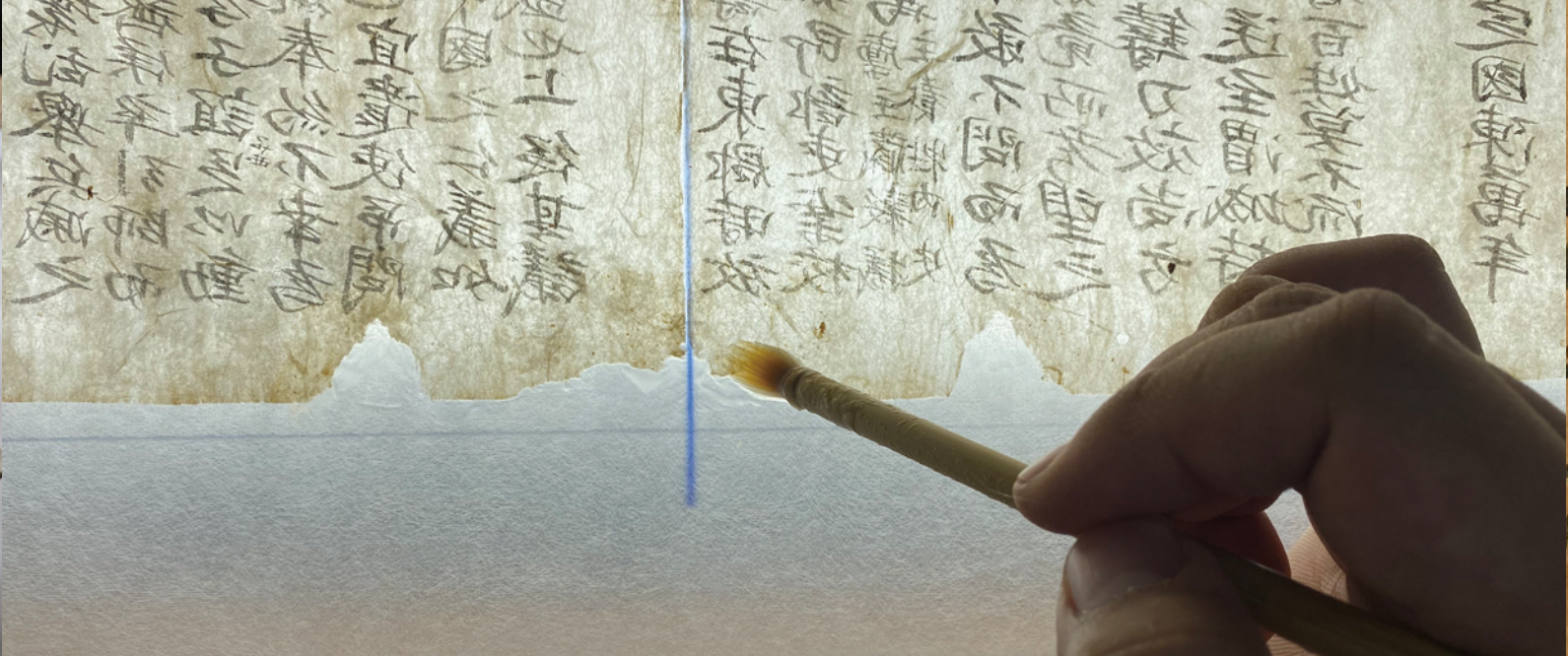
김성
한국학호남진흥원 이사
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하드웨어
(독립건물)

소프트 파워
(호남아카이브)

뿌리
(설립과정)

이 세 가지가
순조롭게 실행돼야
진흥원이 호남의
정신적 상징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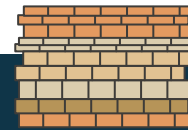
옛기록모아

호남학 숨결 살리다

호남학 숨결 살리다

호남 국학 자료 10만 점 수집, 그 회고와 전망

안동교 한국학호남진흥원 자료교육부장



총 누적 수집량

103,425 점

2025년 16,184점

2024년 17,273점

2023년 17,416점

2022년 13,693점

2021년 11,039점

2020년 2,680점

2019년 3,996점

2018년 21,144점



기증·기탁처

143 개처

기증 22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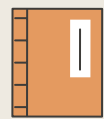
기탁 121개처

한국학호남진흥원은 2014년에 '광주·전남 상생협력의 제'로 추진된 이후, 2017년 7-8월에 양 시도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9월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하였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이듬해인 2018년 4월 6일에 비로소 협소한 임시사무실에서 개원식을 열어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진흥원은 '훼손 및 멸실 위기에 처한 호남지역 한국학 자료를 조사·수집·보존·연구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나아가 '호남 한국학을 교육·연수·전시·보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한다.'는 설립 목적을 표방해 왔다. 다시 말하면 한국학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보급하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가동, 운영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문화를 창달하는데 진흥원의 핵심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의 핵심 목적을 수행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일차적인 작업은 호남지역에 산재하거나 역외(域外)로 유출된 한국학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수집하는 것이다. 호남(湖南)은 호남인들이 남긴 생활·학문·정치·문화·예술 자료 등이 다수 생산되거나 보관되던 곳이며, 그 자료는 책자 형태로 묶인 고서, 낱장 형태로 적힌 고문서, 글씨와 그림을 담은 고서화, 종이에 찍기 위해 글자나 그림 등을 새긴 고목판 등의 기록자료와 근현대 자료 및 유물까지 망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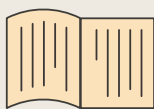
실제로 진흥원은 문체부의 국학진흥 사업비를 지원받아 한국학 자료·수집, 정리·보존, DB 구축 및 보급, 주요 문집 국역, 일기자료 입력, 서화자료 정리 등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호남의 누정·향약·금석문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상상과 추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호남지역 기초자료에 바탕을 두고 사실적으로 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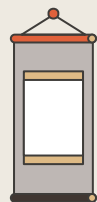
고문서
63,660점
61.6%



고서
24,340점
23.5%



근현대자료
9,318점
9.0%



서화
4,803점
4.6%



유물
1,161점
1.1%



목판
143점
0.1%

어진다. 결국 모든 사업의 시작은 한국학 자료의 조사와 수집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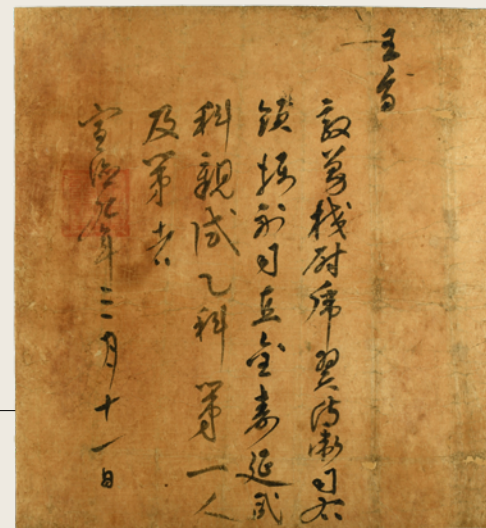
지난 8년을 돌아보면, 진흥원의 조사 수집팀은 2018년에 21,144점을 수집하는 쾌거를 올렸으나, 2019년과 2020년에는 3,996점과 2,680점을 수집하는 데 그쳐 큰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팀을 재정비하여 꾸준히 11,000여 점에서 17,000여 점을 수집해 왔고, 드디어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누적 수집량이 총 103,425점에 이르렀다. 명실공히 한국학 자료의 수집이 10만 점을 돌파한 것이다.



환영지 목판·초안

장흥 장흥위씨 존재고택 소장자료

호남의 실학자 존재 위백규(1727~1798)가 제작한 환영지 목판과 환영지 초본이다. 목판에는 독도 등이 표기되어 있다. 울릉도보다 독도를 더 크게 새겼다. 환영지 초안은 채색 지도이며, 군여만국전도와 비교가 되는 천하도가 수록되어 있는 귀중자료이다.



김수연 왕지

강진 김해김씨 시중공파 김추일 소장자료

1434년 김수연(1419~1455) 장군에게 발급된 무과 합격 증서인 흥패이다. 김수연은 김종서, 최윤덕과 함께 4군 6진을 개척한 장군으로 호남에서 무과 흥패로는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문서이다.

유형별로 보면, 수장고에 보관된 자료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문서로 61.6%(63,660점)이고, 다음이 고서로 23.5%이다. 이외에 근현대자료 9.0%, 서화 4.6%, 유물 1.1%, 목판 0.1% 순으로 수량을 형성하고 있어 다양하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 자료가 72.1%(74,523점)를, 광주광역시 자료가 21.6%(22,311점)를, 전라북도 자료가 4.4%(4,519점), 기타 서울특별시·경기도 자료가 2.0%(2,072점)를 차지하고 있어 광범위하다.

현재 호남지역에는 각종 도서관이 즐비하고 박물관의 숫자도 적지 않은데, 이 중에서 옛 종이에 기록된 자료를 10만 점 정도 소장하고 있는 곳이 과연 몇 곳이나 될까. 필자는 몇 개 대학 도서관의 고서실 소장량을 체크해 보았으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진흥원의 소장 자료가 호남지역에서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자부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진흥원의 한국학 자료는 크게 기증과 기탁 자료로 구



주자서절요

보성 진원박씨 매창·화당가 소장자료

호남 의병장이었던 죽천 박광전(1526~1597)이 퇴계 이황이 저술한 <주자서절요>를 직접 받아 공부한 흔적이 남아 있는 귀중자료이다.



음식보

나주 풍산홍씨 석애문중 소장자료
 1756년 나주 도래 풍산홍씨 문중에서 홍수원의 아내 진원오씨와 며느리 진주정씨가 작성한 한글 조리서이다. 전라도의 식재료 및 요리 이름을 알 수 있는 희귀본이다.



양선생문답첩

광주 행주기씨 고봉 종가 소장자료
 고봉 기대승(1527~1572)과 퇴계 이황(1501~1570) 간에 주고받은 편지와 시를 수록한 책이다. 고봉 기대승의 친필을 확인할 수 있는 희귀본이다.

성되어 있다. 기증은 개인이나 문중이 자료의 소유권까지 기관에 넘겨 연구 활용케 하는 제도이고, 기탁은 소유권은 개인이나 문중에 있되 한시적으로 자료를 기관에 넘겨 연구 활용케 하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기증 기탁처는 총 143개에 달하는데 기증이 22개처로 11%를, 기탁이 121개처로 88%를 차지한다. 장흥 행주기씨 금강종가 자료(3,641점)는 우리 진흥원에 1호로 기탁된 자료이고, 보성 진원박씨 매창·화당가 자료(2,977점)는 올해 10만 점을 채우는 데 기여한 기탁 자료이다. 또 장흥 수원백씨 백형은 자료, 광주 나주나씨 나상학 자료, 장흥 영광김씨

삼우당 자료 등도 우리 수장고를 빛내주는 기증 자료들이다.

기증 기탁자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누대에 걸쳐 가전(家傳)된 자료들이 좋은 환경에서 항구적으로 보존되고 체계적인 연구 과정을 통해 학술적인 조명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진흥원은 기증 기탁자의 소중한 뜻을 되새겨 가장 과학적인 수장고에 자료를 보존하면서 심도 있는 학술적인 연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우선 기증 기탁자에 대한 예우로, 보관 증서 및 감사패 증정, 전문 수장고에서 보존 관리,



기우만 초상화

광주 행주기씨 노사 종가 소장자료
 석지 채용신(1850~1941)이 그린 호남을 대표하는 유학자 기우만(1846~1916)의 초상화이다. 매천 황현 초상화와 함께 채용신의 화법(畫法)이 제대로 담겨져 있는 귀중자료이다.

DB 구축 및 웹서비스 제공, 학술대회 개최 및 자료 전시, 자료집 및 목록집 발간, 자료 국역 및 문화유산 지정 협조 등을 헤드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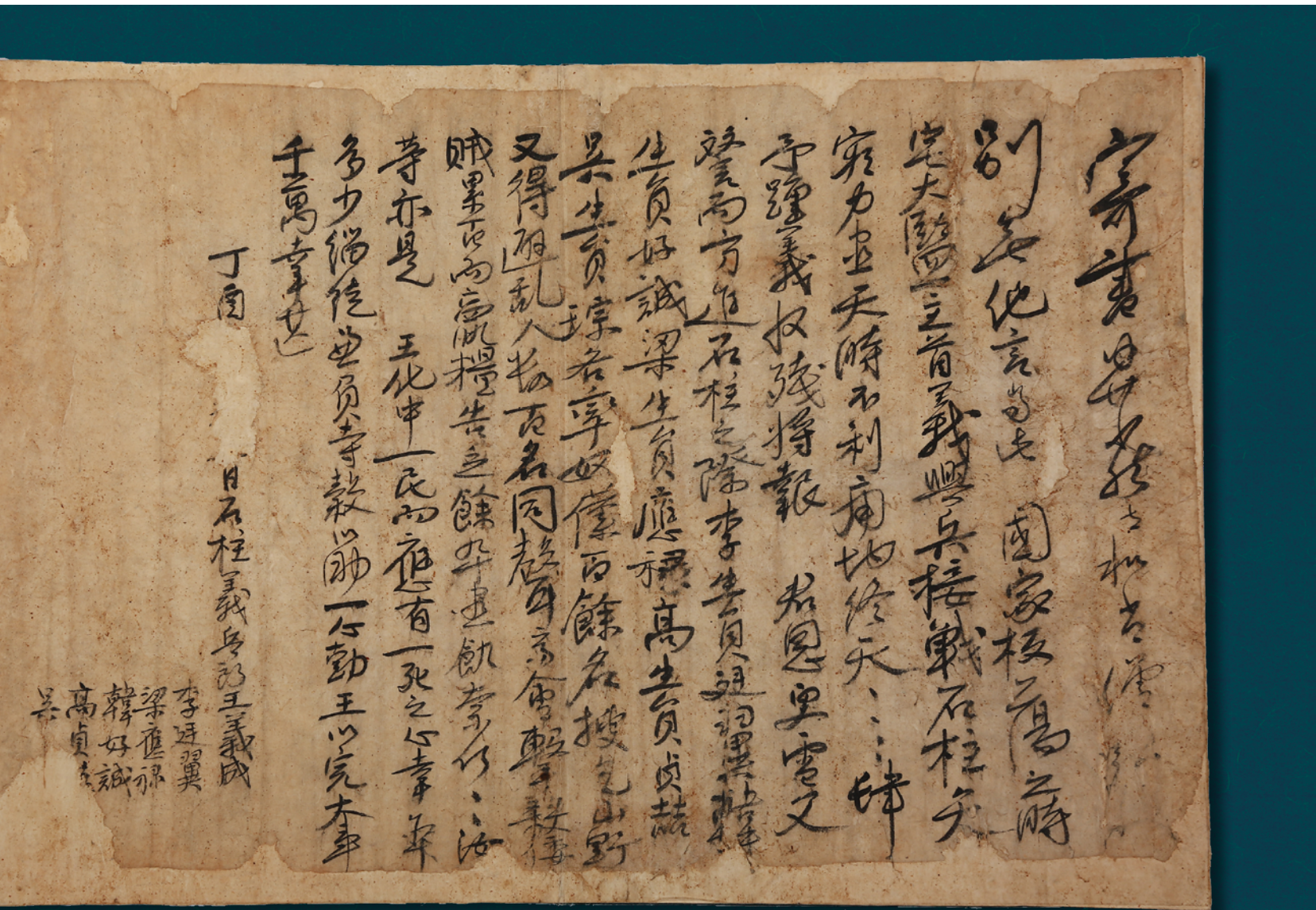
현재 진흥원의 재정 형편이나 인력 구성으로 볼 때 이 정도의 예우도 어찌면 벅찬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기증 기탁된 자료를 가치있게 조명할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증 기탁 자료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연구자와 대중들의 관심을 환기해야 하고, 학문 후속세대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해독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기존의 한국학 연구 성과를 보완하는 생생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획이 요구된다.

앞으로도 진흥원의 한국학 자료 수집은 연차적인 목표에 맞추어 진행될 것이다. 조사 수집에 대한 조직과 지원이 확충되면 될수록 수집의 속도와 분량은 증폭될 것으로 본다. 동시에 수집된 원자료(原資料)에 대한 학술적 기획과 연구도 수반되어 넓게는 한국학을, 좁게는 호남학을 규명하는 데 다양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



남도의병 유물과 기록

박중환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준비단장



구례 석주관 의병소 격문 (전라남도 지정문화유산)

1597년 11월 석주 의병소(義兵所)에서 화엄사 승려들에게 군량과 승병의 지원을 요청하며 보낸 격문이다. 이 격문은 1798년 2월 화엄사 승당을 중수할 때 우연히 발견되었으며, 석주관 7의사의 의병 활동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우리 역사 속의 의병과 남도의병

오는 2026년 2월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문을 연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의 개관에 즈음하여 우리 역사 속의 의병과 남도의병의 역사*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의병’이란 단어의 의미는 ‘의로운 군병’이라는 뜻이다. ‘의병(義兵)’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서서 싸웠던 사람들이다. 의병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가리키는 『선조수정실록』의 표현이 좋은 참고가 된다. 그 기록에서는 “군사를 소모(召募)하는 사람이 곳곳에서 있게 되어 의려(義旅)를 거두어 모집하여 각자 군을 삼았는데, 주현(州縣)의 호소(號召)를 받지 않은 자를 의병이라 하고, 수령이 군민을 조발(調發)하여 원수의 절제를 받는 자를 이 름하여 관군이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 왔고 그때마다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 나섰던 의병 활동들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의병 창 의(倡義)의 규모와 의병 활동 양상이 비교적 크고 광범위하며 전쟁 진행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은 임진왜란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일제의 강점으로 국권을 상실하기 이전까지의 대한제국기 전후에도 광범위하고 치열한 의병투쟁이 전개되었다. 이 두 시기의 의병 활동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의병의 역사는 매우 특기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전남을 비롯한 호남지역은 임진왜란 전후와 대한제국 전후시기에 의병활동이 매우 치열하게 일어났던 지역으로 전남지역 의병의 역사는 전남이 ‘의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역사적 전통의 하나가 되어왔다.

16세기 조선은 변경에서 군사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에서 장수가 중앙군과 무기 등을 가지고 현지로 파견



한말 의병장들

되어 지방의 병·수사와 같이 침입에 대응하는 방식인 제승방략(制勝方略)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간헐적으로 국경을 침범하던 왜구(倭寇)나 여진족의 침입이 소규모로 되풀이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국방체제가 기능을 발휘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체제로는 임진왜란과 같은 전면전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 대규모의 왜적이 침입하자 이를 방어할 만한 규모의 중앙군을 곧바로 파견할 수도 없었고, 해당 지방에서 병사를 동원하여 구축한 방어선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보완할 수단도 없었다. 개전 초기 일본군의 공격에 관군이 무너지자 일본군은 조선군의 저항없이 빠른 속도로 북상했다. 이때 왜군은 후방의 요충지에 소수의 병력만 남긴 채 북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이 북상하고 난 각 지역에서 정규군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을 공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역적으로는 의병 봉기의 양상이 달랐다. 일본군의 진격로 상에 위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던 영남 지역은 스스로의 힘으로 마을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의병을 일으켰다.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킨 광재우(郭再祐)의 경우가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호남지역

* 남도(南道)는 조선시대 이래 흔히 경기 이남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지만, 근래에는 호남지역 특히 전남과 광주를 아울러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남도’라는 용어를 전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을 이르는 뜻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은 영남지역에 비해 일본군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 지리적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호남지역의 사민들은 국가와 왕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진 상황 속에서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그렇기 때문에 의병 봉기의 동기가 가족과 마을을 지키는 지역 방어의 필요보다는 임금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대의(大義)의 기치 아래 형성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임진왜란 때 의병을 크게 나누면 지역 방위에 목표를 둔 향병과 한성(漢城) 수복과 실지(失地) 회복에 목표를 둔 국가방위적 성격의 근왕병(勤王兵)으로 나눌 수 있다. 영남 지방과 함경도 지방의 의병 활동은 대체로 향병의 성격을 지녔으며, 근왕병의 성격이 두드러진 예는 호남 지방의 의병이다. 실제 호남 의병의 성격은 국가방위의식이 강했으며, 활동방향에 있어서도 상경지향(上京志向)이 강했다. 또 다른 지역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이고 조직적이며 통일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다.

반면 경상도 의병은 향토방위적 의식이 강하였으며, 활동에 있어 지역적으로 국한된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일본군의 직접적인 침입을 받으면서 창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의병 모집을 이끌었던 유력 사족들이 공통적으로 유교이념에 기반한 근왕정신을 갖고 있었고, 외적에 대한 민족적 저항의식이 있었으며 생활터전인 지역을 지키

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양쪽 모두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대한제국기의 남도의병은 1896년 기우만이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이후 치열한 투쟁을 이어왔다. 1907년부터 남도의병은 전국적인 구도에서 의병항쟁을 선도해 가는 양상을 보였다. 일제의 대규모 의병탄압 군사작전이었던 '남한폭도대토벌작전'(1909년 9월-10월)이 현재의 전남과 광주지역을 주요 표적으로 진행했던 것은 대한제국기 의병활동의 역사에 있어서 남도의병의 활동규모와 비중이 그만큼 컸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대한제국 시기의 남도의병은 의병참가자 숫자나 의진의 규모에 있어서 주목할 만 했을 뿐 아니라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무엇보다 다양한 계층과 신분의 의병장들이 등장하여 일제에 맞서 싸웠다는 사실이다. 의병장으로는 전통적으로 양반 유생이나 전직 관료가 많았었지만 대한제국기 남도의병의 경우 유배수나 빈농출신 나아가 머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계층 출신의 의병장들이 등장하여 활약했다. 남도의병은 조계산이나 지리산과 같은 산악지대에 의병투쟁의 근거지를 구축하여 유격전을 펼쳤으며 대표적인 의진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일제의 군경에 맞섰다. 11개의 대표적 의진이 참여한 호남동의단과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



구례 의병장 왕의성이 사용한 칼

정유재란 때 활동한 구례지역의 의병장 왕의성(王義成)이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두 자루의 칼이다. 16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도는 전투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중환도(中環刀) 규격의 칼로서 조선 전·중기로 이어지는 우리 전통 도검의 원초적 전형을 담고 있다. 또 다른 한 점인 '지팡이 칼'은 민간에서 지팡이로 위장한 칼로서 조선시대 의병들의 무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2026년 2월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

을묘왜변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유물
3,08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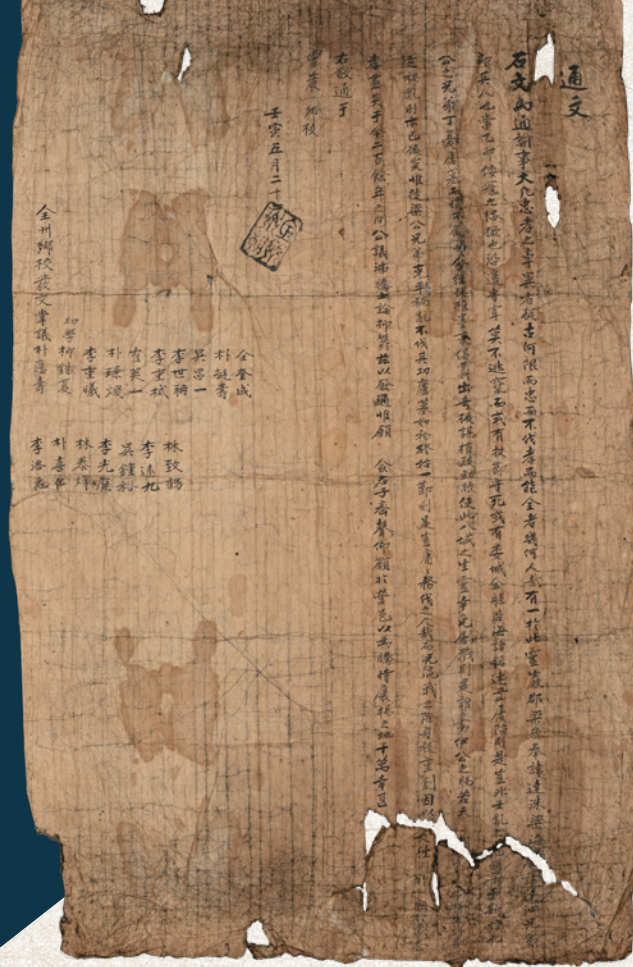
한국학호남진흥원
자료수집, 정리 등
협업 수행

2026년 2월 남도의병의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문을 연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역사를 통하여 매우 활발하고 강력한 의병투쟁의 유산을 가진 남도의 의로운 역사를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되고 있다.

이 박물관은 전시와 조사, 연구를 통하여 의병 역사를 재조명하며 의병 정신의 선양과 의병 역사 교육을 펼쳐나가게 될 것이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의 건립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되어 2025년 12월 건축물이 준공될 예정이며 2026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박물관은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1042번지 일원에 건립되고 있으며 대지면적 22,396㎡, 연면적 7,321㎡의 규모이다. 전시실과 수장고와 무명의병 추모공간, 어린이박물관, 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수집하는 유물의 시간적 범위는 을묘왜변으로부터 임진왜란 시기를 거쳐 국권상실 전후의 대한제국기까지이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현재까지 수집한 의병 자료는 구입과 기증, 기탁 등의 자료들을 포함하여 모두 3,085점이다.

한편 한국학호남진흥원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남도의병 관련 자료 3,085점의 구입·수집 과정에 협조하고, 수집 자료의 체계적 정리 및 위탁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의병사 자료의 공공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는 2026년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학술적 기반과 전시자료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조성한 연계·협력의 성과로, 기관 간 역할 분담과 기능적 협업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양달사 의병장 통문

1782년 5월 24일에 전주향교(全州鄕校) 장의(掌議) 박응수(朴應壽) 등 17명이 영암향교(靈巖鄕校)에 보낸 통문(通文)이다. 1555년 을묘왜변(乙卯倭變) 때 영암(靈巖)에서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운 양달수(梁達洙)·양달사(梁達泗) 형제를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영암 고을에 함께 호소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흥 신군안 의병장 임명첩 (전라남도 지정문화유산)

이순신 장군이 고힌도에서 통제사 재임 중 고힌 출신의 병장 신군안에게 내린 임명장이다. 이순신 장군의 수결이 들어있다. 임진왜란 당시 연해 지역 의병의 활약이 수군 전력 강화에 큰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로, 임진왜란 의병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호남 절의록

임진왜란(壬辰倭亂)·정묘호란(丁卯胡亂)·병자호란(丙子胡亂) 등이 일어났을 때 활약한 호남 의병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은 1799년(정조 23년)에 목판본 5권 5책으로 간행된 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약 30종의 책들이 전해지고 있다. 앞부분에 고정헌(高廷憲)과 유광천(柳匡天)의 서문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람들이 저자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국가적 위기 시 창의(倡義)한 호남 인물 1,457명의 행적과 충절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호남지역 의병 전통과 충절의 역사를 집대성한 대표적 기록물로 평가받고 있다.



매천야록 (국가등록문화유산)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순절한 황현이 1864년부터 1910년까지 47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친필 원본 7책으로 한국근대사 연구에도 중대한 가치를 지닌 사료이다. 「매천야록」에는 일제의 침략상과 이에 대한 우리 민족의 끈질긴 저항이 기록되어 있다.



매천 황현 초상

대한제국기 대표 초상화가 석지 채용신이 그린 매천 황현 (1855-1910)의 초상화이다. 매천 황현은 한말의 대표적인 문인이자 우국지사이다. 매천 황현의 모습을 그린 이 그림은 매천 황현이 자결한 뒤 그 다음해인 1911년 5월에 그려졌다. 황현이 1909년 천연당 사진관에서 찍어두었던 사진을 토대로 그린 것이다.



남한폭도대토벌기념사진첩

1910년 일제의 임시한국파견대에서 한말 후기 의병을 탄압한 일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작한 기록용 사진첩이다. 본문의 앞부분은 임시한국파견대사령관, 의병 탄압에 참여했던 군인과 사법관의 사진, 생포된 의병들의 사진과 탄압 과정에서 찍은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다.



고광순 목함

의병장 고광순의 목함과 고광채의 인장이다. 목함에는 '고광욱'이라고 새겨졌는데, 이는 고광순의 어릴 적 이름이다. 고광순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 이후 의병을 모집하여 좌도의병대장에 추대된 인물이다. 인장의 주인공인 고광채는 고경명의 후손이며, 고광순의 친척으로 고광순 의진에서 참모 겸 우익장으로 활약하였다.



데이터로 그리는 문화자원의 미래

광주 문화예술 인문스토리 플랫폼 개발과 이후의 전망

유인태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서론: 광주의 문화와 역사, 그 아카이빙의 흔적들

우리 삶의 곳곳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늘 함께 살아 숨신다. 한낮의 햇살이 쨍글거리는 거리에서 바라보이던, 등 곳길 버스 창밖으로 문득 내다보이던, 퇴근하며 들른 포장마차에서 눈가에 들어오던 어느 풍경 너머에는 이름모를 작은 역사들이 묻어 있다. 무너져 사라진 읍성의 주춧돌에 새겨진 알 수 없는 문자들과, 1980년 오월의 함성이 스며든 금남로 거리의 어느 낡은 팻말과, 우리네 어머니와 또 어머니의 어머니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하던 양림동 골목길 어귀에는 흘러가버린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걸을 맴돌며 숨쉬는 그 어느 때의 기억이 선연하다.

그렇게 각자의 공간과 일상 속에 아스라이 남아 있던 흔적들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를 찾아온다. 한지에 적힌 빛바랜 먹글씨는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까만 픽셀이 되어 스크린 속에서 깜박이고, 오래된 거리 곳곳에 스며있던 이야기들은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웹 어딘가를 떠돌다 우리 손바닥 위 작은 기기로 흘러들어 반짝거린다. 각자의 기억 속에 남아 있던 술한 역사의 속삭임과 기록으로 남은 여러 문화의 흔적들은 그렇게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와 함께 21세기 공기를 마시며 또 한 번의 숨을 쉬고 있다.

최근 20년간 광주는 이런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2006년에 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아시아문화도시법)이 2007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광주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디지털 환경으로 옮겨오는 다양한 실험을 이어왔다. 광주읍성을 온라인에서 재현한 ‘사이버 광주읍성’¹부터 광주 곳곳의 문화 자원을 백과사전 형식으로 편찬한 ‘디지털광주문화대전’², 그리고 광주의 역사와 문화에 담긴 다채로운 이야기

를 엮어낸 ‘광주역사문화자원스토리텔링’³에 이르기까지 광주는 지역 문화자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가능성을 꾸준히 탐색해왔다.

그리고 2022년부터 새로운 아카이브에 대한 기획이 이루어지고 또 개발이 시작되었으니, ‘광주 문화예술 인문스토리 플랫폼’이 그것이다. 해당 플랫폼은 2025년 말 현재 그간의 여정을 정리해서 결과물로 만드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광주의 문화, 예술, 역사를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항목들이 데이터로 가공되고, 또 각각의 데이터가 서로 유관한 맥락으로 연결되어 만들어내는 풍부한 이야기가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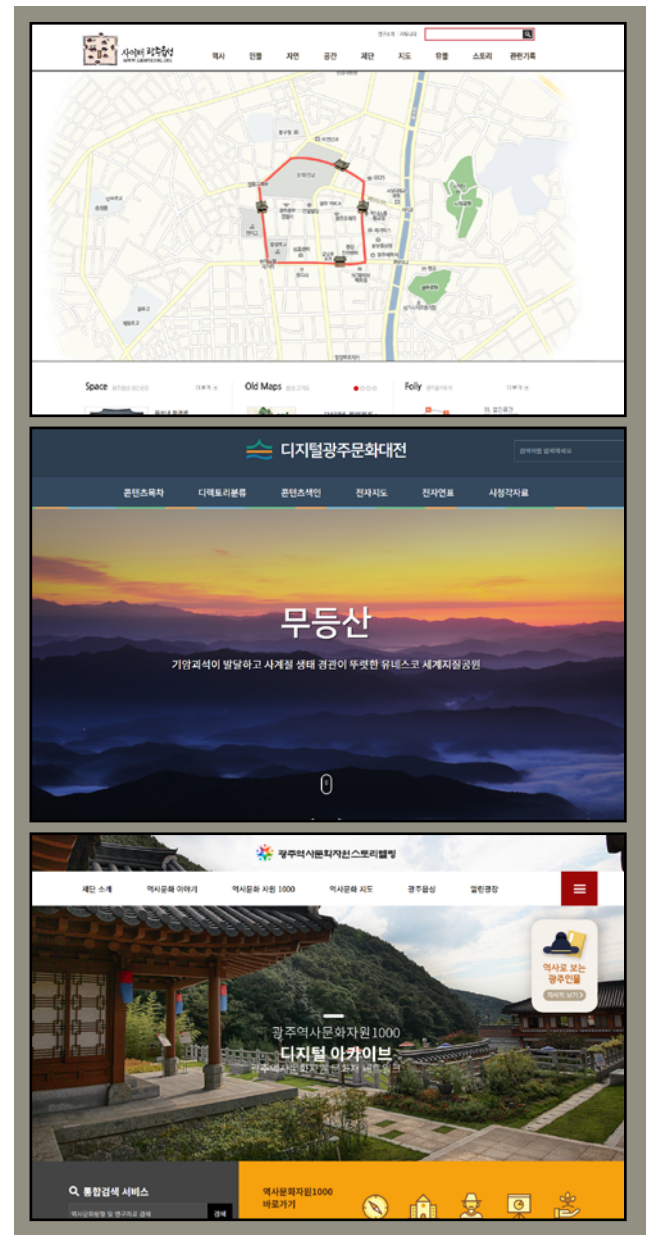
‘광주 문화예술 인문스토리 플랫폼’은 소위 AI 시대에 지역의 문화, 예술, 역사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자원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의식을 현실에서 펼쳐보인 일종의 실험에 가깝다고 해야 한다. 일련의 기획으로서, ‘사이버 광주읍성’에서 ‘디지털광주문화대전’과 ‘광주역사문화자원스토리텔링’을 거쳐 최근의 ‘광주 문화예술 인문스토리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광주의 문화 자원을 디지털 환경에 담아내기 위한 여러 노력은 그간 어떤 고민을 품어왔을까, 또 앞으로의 AI 환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광주의 문화, 예술, 역사의 풍경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문화 자원의 디지털화, 그 의미에 관하여

기록유산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화’라는 말을 꺼내면, 우리는 머릿속에 흔히 하나의 단선적 과정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아날로그 환경에 존재하는 종이 기록물을 스캔하고, 그 결과물로서 디지털 이미지를 확보한 다

1. 사이버 광주읍성 URL: <http://gjeupseong.org/main/main.php>
2. 디지털광주문화대전 URL: <https://www.grandculture.net/gwangju>
3. 광주역사문화자원스토리텔링 URL: <http://gjstory.or.kr/index.html>

음, 해당 이미지에 담긴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 그 정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디지털화의 내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날로그 환경에 있는 대상을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하는 여정은, 그러한 표면적 절차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면의 복잡한 고민과 노력을 품고 있다고 해야 한다. Digitization, Digitalization, Digital



사이버 광주읍성, 디지털광주문화대전, 광주역사문화자원스토리텔링 홈페이지(위부터)

Transformation. 세 단계로 압축할 수 있는 디지털화의 과정은 단순히 기술적 차원의 진화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문화 자원을 바라보고 다루는 우리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의 문화 자원을 대상으로 지난 20여 년간 이루어져 온 디지털 아카이빙의 역사도, 이 세 단계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인식의 변화를 도모해왔다.

가령 첫 번째 단계 Digitization은, 아날로그 환경에 존재하는 자료들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래된 기록을 담고 있는 문서를 스캔하고, 세월의 흔적이 담긴 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 누군가의 육성을 음성 파일로 저장하는 작업이 그에 해당한다. 1992년 광주읍성 유허가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대략 20년 뒤인 2013년 시작된 ‘사이버 광주읍성’ 프로젝트는 이 단계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고려 말에 지어져 식민지 초기까지 약 500여 년간 그 명맥을 이어온 광주읍성의 흔적과 관련 기록들을 조사하고, 이를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하여 온라인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역사, 인물, 자연, 공간, 제단, 지도, 유물, 스토리, 관련 기록 등 9개 영역으로 콘텐츠를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가는 광주의 역사 자원을 디지털 공간에 보존하려는 첫 시도였다. ‘보존’은 Digitization 작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아날로그 환경에서 훼손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 기록을 디지털 포맷의 자료로 변환해 영구히 보관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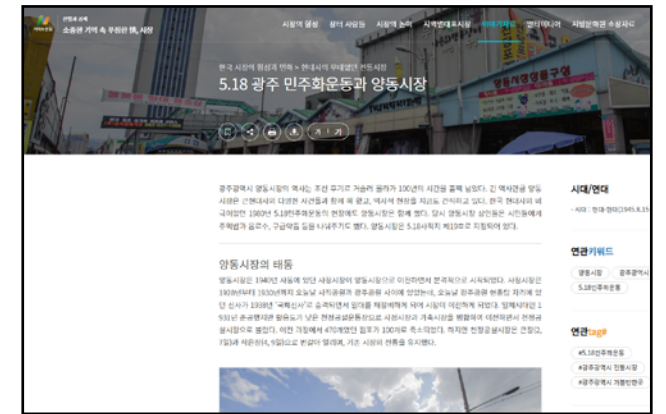
두 번째 단계 Digitalization은, 단순히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수준을 넘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해당 자료에 대한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디지털광주문화대전’은 이 단계로의 진입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디지털광주문화대전’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일부라 할 수 있는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2003년 시작한 지역문화 집성 플랫폼이

다. 전국의 지역문화와 관련된 자료와 유관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그에 관한 지식을 제공한다는 목표 하에 현재 100여 개가 넘는 지역(시군구)의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편찬 맥락에 입각하여, ‘디지털광주문화대전’은 광주의 문화와 역사, 경제, 사회, 종교, 문학, 생활, 예술을 망라하는 온라인 지식백과사전으로 구축되었다. 단순히 주제별 자료를 보관하는 디지털 저장소가 아니라, 지리, 역사, 문화유산, 성씨/인물, 정치/경제/사회, 종교, 문화/교육, 생활/민속, 구비전승/언어/문학 등으로 세분화된 분류 체계와 시대별, 유형별, 지역별 검색 기능, 그리고 위치 정보를 담은 전자지도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전자연표를 구현함으로써, 사용자가 광주의 문화자원을 입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주역사문화자원스토리텔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약 1,000개 항목의 자료를 발굴해 정리함으로써, 이를 ‘역사문화지도(디지털 지도와 인포그래픽)’로 시각화하고, ‘스토리 100’이라든지 ‘역사문화웹툰’ 형식의 콘텐츠로 재가공한 것은, 당시 그러한 방식이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지식 전달 채널로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관계된 다소 건조할 수 있는 정보를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내고, 디지털 지도 위에서 역사문화자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웹툰과 같은 대중적 매체를 창작해 사용자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것. 이러한 일련의 과업 이면에는 바로 ‘전달’을 중요하게 여기는 디지털화의 경향성이 있다. Digitalization 단계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자원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의 고민이 핵심인 것이다.

한편으로 Digitization과 Digitalization의 단계는 한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구축한 ‘지역N문화’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지닌다. ‘지역N문화’에 담긴 광주에 관한 기록,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양동시장」⁴

계가 있으니, 아무리 훌륭한 아카이브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여전히 수동적 관람자 또는 학습자의 위치에 머무른다는 사실이다. 가령 원자료 이미지를 둘러보는 것에서 시작해, 웹툰을 감상한다든지, 디지털 지도를 통해 역사 유적의 위치를 살펴볼 수는 있겠으나, 그 자료들을 다채로운 맥락에서 재구성함으로써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경험을 얻기는 어려웠다. 콘텐츠로 완성된 결과물은 그 나름의 완결성을 갖춤으로써 학술적으로 그리고 대중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았지만, 마치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유리관 내부의 유물처럼, 관찰자로서 감상할 수는 있어도 참여자로서 직접 다루어볼 수는 없다는 한계가 늘 있었다. 디지털 기술이 ‘데이터’를 매개하여 제공하는 ‘확장’과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충분히 현실화하지는 못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번째 단계의 디지털화, 즉 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Digital Transformation은, 근래 관심이 부쩍 더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첨단 AI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그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 자원을 가공하

4. 지역N문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양동시장 URL: <https://local.nculture.org/x9p6n>

는 데 있어서 수동적으로 데이터 처리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자원을 다룰 수 있도록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완성된 결과물로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진화하는 과정의 산출물로서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끔 그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러한 지점이 Digitization과 Digitalization과는 다른 Digital Transformation의 핵심 지형이라 하겠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그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인 '광주 문화예술 인문스토리 플랫폼' 구현 과업은 바로 이러한 Digital Transformation 패러다임에 기초한 것이다. 문화 자원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완결된 서사로서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결과물로 제작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구축-해체-재조립 가능한 데이터로 광주의 다채로운 문화 자원을 구조화하고 편찬함으로써, 이를 일종의 '허브(hub)'이자 '리포지토리(repository)' 형태로 개방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하겠다. 아카이빙의

방법론적 맥락에서 이것을 들여다볼 경우 더욱더 발전한 데이터 처리 기술의 활용 정도로 그 의미가 논의되겠지만, 문화적 맥락에서 이러한 접근이 지닌 의미를 찾다 보면, 우리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와 예술과 역사의 흔적을 앞으로 AI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꾸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능동적이고도 실험적인 활동에 가깝다.

AI시대, '인문 데이터(Cultural Data)'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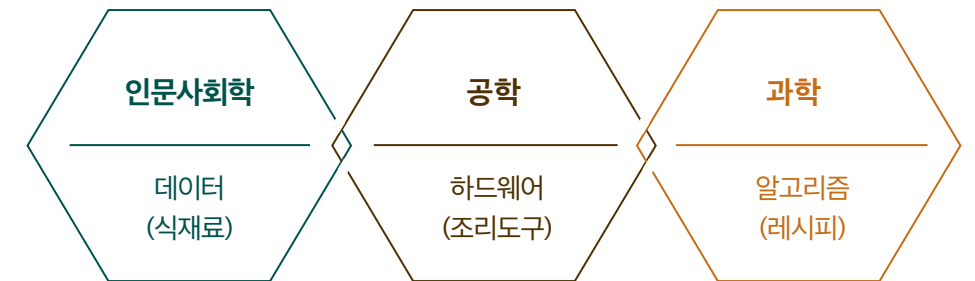
새로운 과제

AI 기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떠올린다. 실제 AI는 아키텍처로 대변되는 알고리즘과 데이터센터로 대변되는 하드웨어 인프라 외에도 데이터라는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하드웨어,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로 압축되는 3개의 토대 위에서 AI 기술이 작동한다고 보면 되겠다. GPU, NPU 등 반도체 기술로 대표되는 하드웨어 인프라는 막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의 공학 기술을 요구하고, 소위 어텐션



인문학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이루어져 온 과정

조리도구 전문가(하드웨어 구축, 공학 전공자), 레시피 발명자(알고리즘 개발, 과학 전공자), 식재료 전문가(데이터 처리, 인문사회 전공자)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유기적 협업 프로세스가 작동할 때, 멋진 요리(훌륭한 AI)가 탄생할 수 있다.



AI의 세 가지 핵심 요소와 개별 학문의 관계를 요리에 비유할 때의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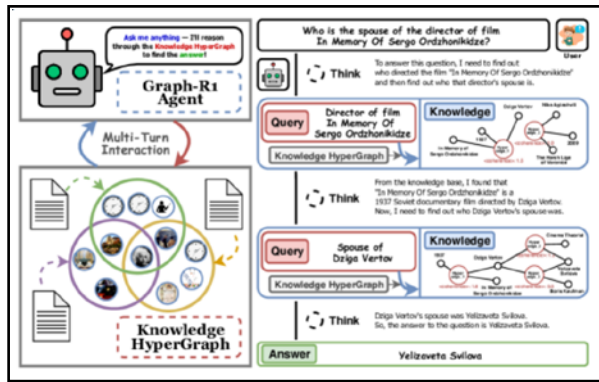
메커니즘으로 대표되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와 같은 알고리즘은 고도의 수학적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이 두 영역은 공학과 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형이라 할 수 있으며, 여타 분야에서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갖추고 진입을 도모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AI 기술의 또다른 토대로서 데이터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앞으로의 세상에서 AI를 매개하여 다루어질 데이터 가운데 그 비중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적 상식과 교양으로 통용되는 지식 자원이며, 그 출처는 대부분 문화·예술·역사 분야에 있다. 호남의 각종 설화와 문헌 자료, 광주의 오월 정신과 항쟁의 역사, 서편제에 깃든 특유의 정서, 남도음식에 담긴 각종 이야기 등. 이러한 요소들은 사람의 도움없이 기계가 온전히 재현할 수 없으며, 또 잘 재현해 주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 거대 규모의 하드웨어와 최첨단 알고리즘만으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것이 우리 문화의 고유한 맥락과 결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오히려 그 문화를 살아온 사람들이, 그 역사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그 예술의 가치를 이해하는 연구자들이 온전히 재현할 수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이는 AI 시대 인문학이 가져가야 할 독보적인 영토로서 곧 문화·예술·역사 분야의 데이터가 지니는 함의에 대해 생각해볼게끔 만든다.

그렇다면 AI 환경에서 다룰 수 있는 '좋은' 인문 데이터(Cultural Data)의 조건이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

은, 디지털 환경에서 조립-해체-재구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완결성과 관련이 있다. 가령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은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지만, 관람만 할 수 있을 뿐 직접 다룰 수는 없다. 결과물이 지닌 완결의 형식에서 벗어나 마치 레고 블록처럼, 각각의 자원이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면서도,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조립-해체될 수 있어야 한다. 일방적인 감상과 소비만 가능한 결과물 콘텐츠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확장적으로 조합되고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형식으로 가공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환경 속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개방적으로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정교하게 구조화된 데이터라 하더라도, 특정 플랫폼이나 시스템 안에 갇혀 있다면 그 활용 가능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이 훌륭한 문화 데이터를 구축했지만 그 기관의 웹사이트에서만 접근 가능하고, 다른 플랫폼이나 서비스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면, 그 데이터의 가치는 크게 반감된다. 진정한 의미의 인문 데이터는 특정 인터페이스나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표준화된 형식으로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리포지토리(repository)' 개념이 중요한 이유다. 리포지토리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아니라, 데이터를 누구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일종의 공용 자원 저장소 개념에 가깝다. 연구자가 논문을 쓰기 위해, 창작자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



최근 AI 환경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RAG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삽도는 GraphRAG의 작동 매커니즘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이미지⁵



일본 에도시대(江戸時代)의 고문헌 자료 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고 참조하도록 하여, 에도시대의 고문헌 텍스트로 대화할 수 있는 챗봇 카라마루(からまる)(Sakana AI 개발)⁶

5. Haoran Luo 외 10인, 「Graph-R1: Towards Agentic GraphRAG Framework via End-to-end Reinforcement Learning.」, 2025.07. URL: <https://arxiv.org/abs/2507.21892>

6. 챗봇 카라마루(からまる) URL: <https://sakana.ai/karamaru/>

들기 위해, 교육자가 수업 자료를 구성하기 위해, 그리고 시민들이 지역 문화를 탐구하기 위해 자유롭게 데이터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곳. 이러한 개방성은 단순히 기술적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성격의 데이터가 공공재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직결된다. 폐쇄적인 데이터는 일회적 소비로 끝나지만, 개방적인 데이터는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자원이 된다.

AI와 데이터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고민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AI는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참조함으로써, 그것을 기반으로 대답을 내놓거나 결과물을 생성한다. ChatGPT와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각종 이미지 생성 AI가 놀라운 그림을 그려내는 것은 모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참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향후 등장할 미래의 문화 AI는 무엇을 학습하고 무엇을 참조하게 될까. 만약 우리가 우리 문화를 담은 양질의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AI 시대의 문화는 우리의 근본적 바탕과 무관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곧 문화적 저변의 궁핍함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 뻔하다.

가령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 호남 누정과 선비 문화, 남도음식의 맛과 이야기 등이 정교한 데이터로 편찬되어 있다면, AI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호남 및 광주의 역사와 문화와 예술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가상 해설사가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을 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며, 지역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 그 어떤 문헌보다 풍부한 지식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그러한 데이터가 피상적 정보만을 담고 있어 질적 수준이 낮거나 그 규모가 크지 않다면, AI가 학습-참조할 자원으로서 적합하지 않기에, 유관 맥락에 대한 표면적이고 일반적 수준의 결과물만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인문 데이터(Cultural Data)를 풍



인문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구현한 호남 지역 인문 데이터 사례 : 지암일기(支庵日記) 데이터 아카이브⁷

부하게 가꾸어나가는 것은, 향후 우리가 AI와 소통하며 만들어 나갈 문화적 경험의 풍요로움을 결정하는 단서로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해나가야 할 현실적 과제라 하겠다.

향후 데이터를 매개한 지역 문화의 발전을 기대하며

AI 시대를 맞이하며, 인문학계는 이제 새로운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문헌을 해독하고 역사를 분석하며 문화를 재구성하는 전통적 역할을 넘어, 그 성과를 데이터로 구조화하고 축적하는 일에 대한 요구가 그것이다. 누군가는 “이것은 인문학 본연이 아니다.”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문화의 결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그 맥락을 가장 정교하게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인문학자들이다. 소위 ‘좋은(Beautiful)’ 인문 데이터(Cultural Data)를 만들고 가꾸는 일은 공학 방면의 기술자나 과학 방면의 연구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해당 문화의 근거리에서 그것들을 직접 연구하고 이해해 온 인문학자들이 주도해야 하는 작업이다. 역사, 문화, 예술에 담긴 의미와 맥락, 관계를 구조화하여 양질의 데이터로 편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7. 지암일기(支庵日記) 데이터 아카이브 URL: <https://jiamdiary.info/>

에 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큰 줄기의 접근 외에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세부적인 과제가 산재해 있다. 데이터를 만들고 가공해 나가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표준화와 품질에 관한 고민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도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AI 기반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연구자들이, 창작자들이, 교육자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AI 환경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가져다 쓰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다시금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광주 문화예술 인문스토리 플랫폼’의 실험은 이러한 고민의 시작에 가깝다. 광주에서 뿌린 씨앗이 작은 싹을 틔워 광주를 넘어 호남 전역으로, 나아가 우리나라 문화 분야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

AI 환경에서 우리가 함께 가꾸어나갈 문화의 풍요로움은 결국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만들어 나갈 인문 데이터에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

“경전 이해와 강학 교육에 평생 바치신 뜻 이어 선생의 사서삼경 이해본이 사이버 서당에서 활용되길 바랍니다”

고문헌 기탁, 곡성 영월엄씨 문중 금산서사(金山書舍) 경와(敬窩) 엄명섭(嚴命涉) 선생 종가

경와(敬窩) 엄명섭(嚴命涉, 1906~2003)은 구한말에 태어나 혼란과 격동의 한 세기를 보낸 유학자입니다.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해방의 기쁨, 다시 조국 분단과 6·25전쟁의 참상 등을 몸소 겪었고, 이후에 대한민국이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선생은 격동의 시대에 순산숙(舜山塾, 훗날 금산서사(金山書舍)라고 명명함)을 설립해 후학을 지도하고, 말년에는 전주향교(全州鄕校)에서 유학의 연구와 교육에 전념함으로써 지행합일(知行合一)의 도학자적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학문적 계통으로 보면 죽사(竹師) 장병희(張柄晦, 1871~1941)와 금재(欽齋) 최병심(崔秉心, 1874~1957)의 제자이자, 간재(艮齋) 전우(田愚, 1841~1922)의 재전문인(再傳門人)입니다. 저술로는 문집인 《경와사고(敬窩私稿)》와 일기인 《순산일기(舜山日記)》, 《경와일기(敬窩日記)》, 그리고 사서삼경 이해와 《독서기의(讀書記疑)》가 남아 있습니다. 경와 선생의 저술 및 소장자료는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韓國學中央研究院)에 기탁되어 있는데, 그 현황은 호남한국학기초자료집해제4 《호남의 유학자 경와 엄명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와 선생은 거의 1세기를 살았던 거유(巨儒)시네요. 그럼 선생이 남기신 자료 현황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곡성 영월엄씨 엄명섭 자료를 《한국고문서정리법》과 사부분류법에 의거하여 분류 정리하였습니다. 수집한 자료는 총 2,888건이며, 그중 2,764건을 정리하였습니다. 크게 보아 고문서와 고서 및 유물로 구분되는데, 고문서가 1,755건, 고서가 996건, 그리고 유물이 13건입니다. 고문서는 소차계장류, 첩관통보류, 증빙류, 명문문기류, 서간통고류, 치부기록류, 시문류, 서화류가 있으며, 어떤 유형에도 속하지 않아 기타류로 분류된 자료도 있습니다.

엄명섭 집안에 남아 있는 고서는 경부, 사부, 자부, 집부가 대부분이나, 그에 속하지 않아 기타류로 분류한 것도 약간 있습니다.

경와 선생의 학문적 지향과 특징은 뭘까요?

경와 선생의 학문과 철학은 이기심성론이나 인물성동이론과 같은 형이상학적 주제를 천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호학(好學)과 교학(敎學)의 정신으로 경



경와 엄명섭 선생의 조카 엄재경(嚴載耕, 오른쪽), 장손 엄홍영(嚴弘煥, 왼쪽).

전의 이해와 강학 교육에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 속에서 선생은 독신호학(篤信好學)의 정신으로 도학적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수사선도(守死善道)의 정신으로 후학을 계도(啓導)하여 단절의 위기에 놓인 전통적 가치관을 되살리고자 절치부심하였습니다. 선생은 반구(反求)와 자계(自戒)를 통하여 자신을 검속하고, 충신독경(忠信篤敬)과 진지실천(眞知實踐)을 근간으로 삼아 지행합일(知行合一)의 학문적 경지를 이루었습니다.

선생님이 호를 ‘경와(敬窩)’라고 하신 점으로 미루어보면 ‘경(敬)’이란 한 글자를 무척 강조하신 것도 같아요.

경와 선생은 평소 “학문은 마음을 수렴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일이 없으니, 학문하는 데 마음을 수렴하는 일이 없다면 반드시 진실함이 없을 것이다. 마음이 이미 진실함이 없다면 어떻게 다시 사물이 존재하겠는가. 그러므로 학자가 마음을 수렴하여 몸을 검속하고 몸을 검속하

여 일을 성찰하면 ‘경(敬)’이 이미 확립되고, ‘성(性)’도 드러나게 된다. 이제 마음을 수렴하여 얻을 줄 안다면 바로 마땅히 ‘경’으로써 공부해야 한다. 말과 일이 어긋나지 않고 움직임과 고요함이 어긋나지 않아 마음이 마침내 리(理)와 하나가 되어 잠시라도 떠나지 않고 본성을 보존하면 어찌 학문 공부의 지극함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시며 아호 ‘경와(敬窩)’의 정신인 ‘무불경(無不敬)’을 실천하였습니다.

앞에서 교학에 힘쓰셨다고 하셨지요. 그럼 경전(經傳) 연구에도 힘을 쏟으셨다는 뜻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경와 선생의 필생 역작이자 한국 경학 및 고전번역학 분야에서 각별하게 주목해야 할 성과가 있습니다. 《논어집주언해(論語集註諺解)》 4책, 《맹자집주언해(孟子集註諺解)》 5책, 《대학장구언해(大學章句諺解)》 1책, 《중용장구언해(中庸章句諺解)》 1책, 《시전언해(詩傳諺解)》 7책, 《서전언해(書傳諺解)》 7책, 《주역전의언해



진흥원에 기탁한 곡성 영월엄씨 엄명섭 자료 현황

古文書	古書	遺物	합계
1,755건	996건	13건	2,764건

유형별 고문서 현황

疏劄啓狀類	牒關通報類	證憑類	明文文記類	書簡通告類
6건	85건	60건	22건	938건
置簿記錄類	詩文類	書畫類	其他	합계
193건	396건	11건	44건	1,755건

유형별 고서 현황

經部	史部	子部	集部	其他	합계
260건	174건	280건	262건	20건	996건

《周易傳義諺解》 10책으로 경서 언해가 총 35책입니다. 그리고 경서에 대한 의문 난 점을 꼼꼼하게 기록한 《독서기의》 9책도 있습니다. 이는 유학의 교학적(敎學的) 탐구의 밑거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의 교학적 탐구는 공교막부(孔敎莫負, 공자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자)의

정신이 깃들어 있고, 외세에 밀려 멀어져가는 유교적 문화와 사상에 대한 우환 의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전에 대한 선생의 언해 노력은 현대적 관점에서 한국 경학을 연구하는 하나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선생이 경서의 주석까지 현토(懸吐)하고 언해(諺解)한 일은 경와 선생의 언해본이 유일합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석학(碩學)으로서 선생은 역사에 대해서도 남다른 고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심형진(沈衡鎭)은 《조선역사천자문(朝鮮歷史千字文)》에서 우리나라 역사는 “천지가 드넓어 고금이 이어지니, 반만년 역사의 우리나라 조선이다.[乾坤曠漠, 古今連綿, 半萬歷代, 權域朝鮮.]”라고 서두를 꺼냈고, 마지막에는 “우리 동포여, 영원히 번식하고 창성하자.[翳吾同胞, 繁殖永昌.]”로 마무리하여 다소 친일적 성격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와 선생은 시작을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림으로부터 우리나라 역사는 역대 만고가 이어지고 있다.[乾坤肇闢, 權域朝鮮, 粵稽歷代, 萬古連綿.]”로, 마무리를 “깨어나라 우리 동포여,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우

리의 독립 의지를 길이 드러내자.[醒吾同胞, 牙會永彰.]”로 수정하여 초학자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바르게 심어 주었습니다.

경와 선생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협박하여 거짓 조약을 체결하였다[脅締僞約]고 밝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해(註解)에서 단호하게 ‘을사보호조약’을 ‘을사늑약’으로 바로잡고, “위약(僞約)”, “오적(五賊)”, “칠적(七賊)”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민족적인 관점에서 입각하여 역사를 설명하였습니다. 또 우국지사인 민영환(閔泳煥)과 조병세(趙秉世)가 자살한 사실을 거론하며 각 인물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선생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점한 사실을 논할 때 민족적인 관점에서 서술했습니다. 찬란하였던 나라의 운세가 순종(純宗) 황제에 이르러서 그쳤으며 애달파하였습니다. 주해에서도 순종이 일제의 강압으로 양위하고 만 사실에 주목하고, 중국과 대등한 문명이었던 나라의 운명이 끊어졌다고 주체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와 선생이 가장 분노하고 비판적으로 보았던 부분은 위에서 소개한 《조선역사천자문》의 마지막 글귀[醒吾同胞, 牙會

永彰.]였습니다. 선생의 탁월한 안목과 의지가 아니었다면 독립 의지를 이처럼 강력하게 표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와 선생은 탁월한 광유(宏儒)요, 만인의 사표(師表)이셨군요. 기탁자료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보니, 손때 묻은 자료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서삼경의 언해본은 초학자의 교본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언해본 교본을 공개하여 많은 초학자가 이를 통해 학문의 꿈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료실을 사이버 서당으로 운영한다면 경와 선생은 백세지사(百世之師)로 역사에 이바지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그밖에 수많은 기증·기탁자의 사이버 서당이 만들어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리하여 경와 선생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 즉 “아아, 세상에서 가장 큰 욕심은 부모 형제 일가친척을 화목하게 하려는 성인의 마음이다. 너도 세상 사람 모두 화목하게 하려는 성인의 마음을 항상 지녀야 한다.”라고 하신 가르침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경와 엄명섭 선생 기적비(왼쪽)와 금산서사 전경.

생명이 발효한 나주의 품미 남평주조장

윤태석*남평주조장 제7대 관리인(대표)



남평주조장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설립한 근대 산업유산이다. 혹자는 남평주조장을 우리 전통 주조장이 아닌 일제 주조장이라고 폄훼하기도 한다. 그러나 술과 주조장이 산업체제로 처음 들어온 것은 일제강점기다. 그 이전에 술은 집집이 빚어 먹던 가양주(家釀酒) 형태로 존재했다. 따라서 국가나 광역시·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보호받고 있는 7개소의 주조장 역시 일제강점기에 건립한 곳으로, 그 역사는 100년 남짓이다.

남평주조장과 같은 근대유산에는 살아있는 유물이 많다. 술은 미생물이 만들어 내는 발효과학의 결정체다. 그만큼 미생물의 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쓰였던 특별한 건축자재가 있다. 왕겨다. 남평주조장의 천장에는 최소 94년 전(1931년) 왕겨가 약 30cm 두께로 고루 덮여있다. 제조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당시로는 가장 실용적인 대책이었다. 왕겨는 열을 잘 가두는 재료여서 특히, 국실(麴室)을 온난하게 유지하는 단열재 역할을 했다. 전분을 당화(糖化) 해주는 국균(麴菌, Aspergillus oryzae)은 약 30°의 온도를 유지해줘야 함에 따라 왕겨는 냉기를 차단하는 데에도 적격이었다. 또한, 왕겨는 온실효과를 만들어 균의 증식을 고루 일어나게 도왔을 뿐만 아니라 공기와 수분의 흐름을 완화해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왕겨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미생물이 남평주조장의 발효실과 입국실(入麴室), 주모사입실(酒母舍入室) 등에는 역사만큼이나 수북이 쌓여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다.

이 왕겨가 지금까지 잘 지켜온 남평주조장의 미생물들은 영산강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 나주평야를 넘나드는 바람, 남평 사람들의 체취가 교합돼 형성된 공동종(共同種)이다. 40억 년 전에 생긴 미생물로 인간은 알량한 이기를 충족하기 위해 주조장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남평주조장의 진정한 주인은 미생물이며, 남평의 모든 것이 어우러져, 술은 발효될 수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주조장 관리를 맡은 후로 설립을 말할 때 Since(창립) 대신 ‘Born(탄생)’을 써왔다. 내가 한날 관리인에 불과한 이유다. 한편 9월 초, 조선이공대 미생물학 조정일 교수팀과 손잡고 남평주조장에서 4차에 걸쳐 채취한 시료로 각고의 실험 끝에 누룩곰팡이를 복원해 냈다. 이 곰팡이로 배양한 효모는 남평주조장만의 고유종으로 별도의 명칭을 부여받아, 국가 유전자센터에 등록·연구보존할 계획이다. 이 누룩곰팡이는 10년 전 주조 기능이 멈춘 남평주조장의 전통을 잇는 주자로 나설 것이다.

주조장을 있게 한 사람들도 중요한 유물이다. 그들이 소환할 기억은 남평주조장의 역사고 스토리 자원이기 때문이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남평주조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5년 9월부터 ‘나주 남평주조장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다. 연구 과정에서 지난 10월 17일 남평주조장 제4대 박순호(1949년생) 대표와 심층 인터뷰를 했다. 박 대표는 제3대 박재기 대표의 차남으로 남평초등학교를 2학년까지 다니다 광주로 전학 간 후 서울대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다음 1987년에 주조장을 맡아 2003년까지 운영했던 인물이다. 2시간여에 걸친 그의 회고는 남평주조장의 크고 작은 여백을 메꿀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였다.

초대(初代) 대표로 알고 있었던 그의 증조부 박동규는 주조장과는 관계가 없으며, 의병 활동을 하다 처형당해 대전현충원에 모셔져 있다고 했다. 그의 조부 박창환이 남평주조장을 창립했다고 그는 알고 있었으나, 남평주조

장은 일본인 7명(대표1, 이사4, 감사2)이 투자해 1932년 5월 15일 남평주조주식회사(자본금 10,000원, 업종 양조업)로 출범했으며, 초대 대표취체역(代表取締役)은 나가사코 쿤이치로(長迫訓一郎)로 확인됐다.²³

또한, 옛 사진에서 박창환 대표의 얼굴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전 직원들, 남평주조장의 옛 브랜드 ‘드들강막걸리’의 맛을 기억하고 있는 지역민 등은 지금도 효모처럼 살아가며 남평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남평주조장의 역사며 수장고이다. 그 기억의 수장고에서 자료를 끄집어내 정리해낼 과제는 온전히 필자에게 주어져 있다. 기억의 양과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술과 남평, 남평주조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문에라도 연구자적 자세를 늘 유지하며 노력해야 한다.

이들의 기운으로 속히 남평주조장이 복원되어 이분들을 가장 정중한 마음가짐으로 모셔, 원 없이 감사의 마음을 전할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평주조장’ - 술이나 생산했던 단순한 주조장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만큼 고려해야 할 일도 많다. 긴 호흡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

* 1966년에 남평읍 남석리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유물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미술사와 박물관학을 전공(문화학 박사)했다. 2015년 10월 16일부터 남평주조장 관리자가 된 후 술을 빚고 있으며,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전문위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장, 국립항공박물관 학예연구본부장 등으로 일하다 2023년 귀향해 본격적으로 술과 남평주조장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전통주연구소 전문연구위원, 한국예술경영학회·한국박물관학회·한국박물관교육학회 이사와 인천광역시박물관진흥위원, 용산역사박물관 운영위원 등의 직함도 갖고 있다.

1. 예전에 ‘대표 이사’를 이르던 말.
2. 남평주조장이 2011년 ‘나주시향토문화유산(제27호)’로 지정되면서 나주시가 세운 안내 팸말에는 박동규가 초대 대표로 명시되어있으며, 정확한 설립연도도 표기되어있지 않았던데러 일본인이 설립했다는 것과 설립형태조차 표기되어있지 않다. 또한, 역대 대표의 계보도 뒤죽박죽이다. 이는 조사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3. 근가: 東亞經濟時報社. 발간,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昭和18(1932) 양조업지부p.181와 昭和12(1937) 양조업지부pp.196-197.



역사와 스토리의 수장고, 남평주조장

1932년에 설립된 남평주조장은 구조방식과 기능별 공간, 설비와 자료, 많은 이야깃거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문화유산의 보고다. 곡창지대 호남에 유일하게 남아 이 역사를 지금도 발효하고 있는 남평주조장. 이 문화유산의 켜켜한 역사와 숨결을 화보로 담는다.

남평주조장 곳곳에는 미생물을 보존하고 발효를 돕기 위해 활용한 94년 전 왕겨가 지금도 30cm 두께로 고루 덮여있다.



남평의 공동종(共同種), 누룩곰팡이가 수북이 자리 잡은 100년 된 술독.



발효된 술에서 술지게미를 걸러주는 제성기, 1978년에 검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평주조장 건물 측면과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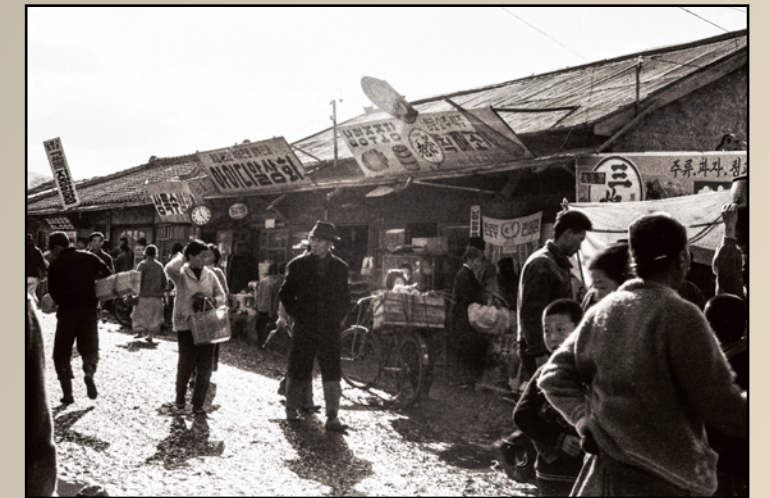
남평주조장은 작업공간을 중심에 두고 냉각실, 입국실, 발효실, 원료실 등이 배치된 최적화된 공간 구조임을 볼 때, 주조만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왼쪽 위부터 국실과 냉각실, 각종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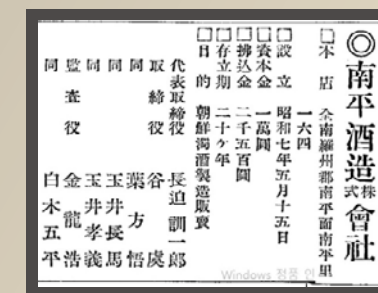
1960년대 남평오일장과 남평주조장(상단 중앙 우측).



남평오일장에 있었던 남평주조장 직매장(1970년 초).



위. 남평주조장(1970년대 초),
아래. 남평주조장 술 배달부(1970년대 중반).



남평주조장 설립 당시 현황: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昭和8(1932)
양조업지부 p.181.



남평주조장 제 2대 박창환 대표와
부인 김신자 여사(1942년 12월 촬영).



[사진-1] 황순일 사건 초검장(初檢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조선시대 살인사건 조사보고서 검장(檢狀)과 시장(屍帳)

이강욱 은대학당 명예교수

1898년(광무 2년), 전주군 난전면 신기리에서 황순일(黃順日)이 친족인 황성언(黃成彦)에게 구타를 당한 뒤 죽었다. 그러자 황순일의 어머니 이 소사(李召史)와 아내 송 소사(宋召史)는 황순일의 시체를 황성언의 집으로 옮겨 놓고, 전주 관아에 달려와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장을 접수한 전주군수 신대균(申大均)은 아전 및 시체 검안 전문가 오작인(倣作人) 등을 거느리고서 현장에 출동하였다. 황순일의 시체를 검안하고 피의자 및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신대균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전라도관찰

사 이완용(李完用)에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문서를 검장(檢狀)이라고 하였으며, 1차 보고서를 초검장(初檢狀), 2차 보고서를 복검장(覆檢狀), 3차 보고서를 삼검장(三檢狀)이라 하였다. 전주군수 신대균이 전라도관찰사 이완용에게 올린 초검장이 바로 [사진-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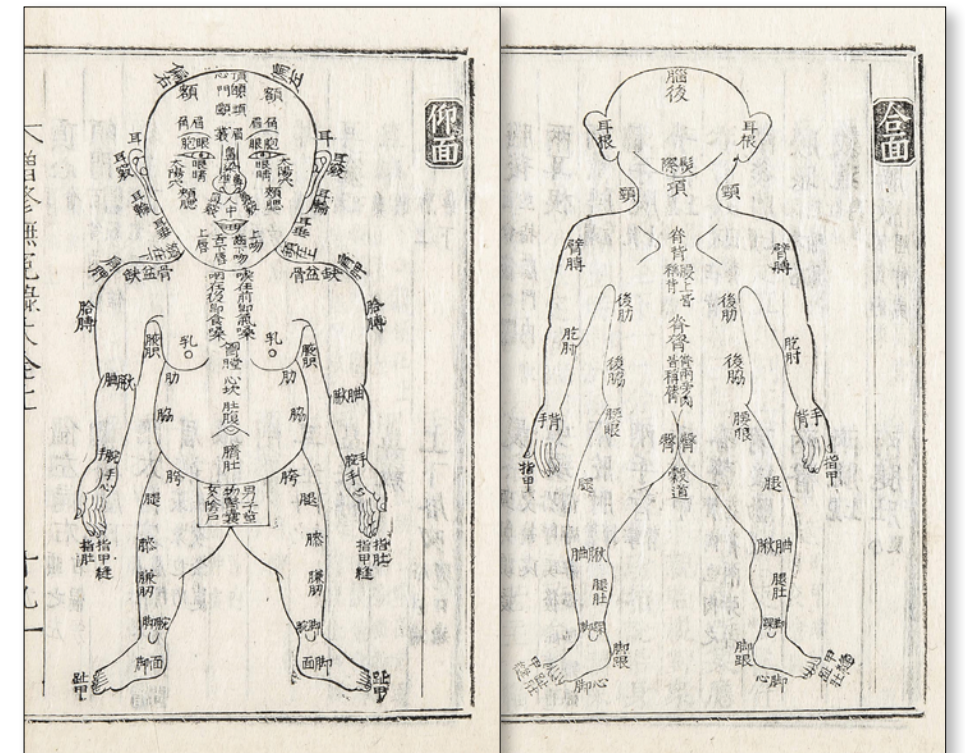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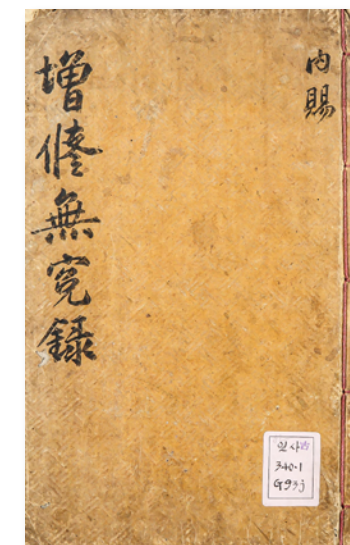
조선시대에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관원이 현장에 나가서 시체를 검안하였다. 따라서 지방에서는 해당 고을의 수령이, 서울에서는 오부(五部) 즉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 중 해당 부관(部官)인 도사(都事)가 아전과 오작인을 거느리고서 시

체가 있는 지역으로 출동하여 시체를 검안하였다. 이처럼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관원을 검관(檢官)이라 불렀고, 시체를 검안하는 것을 검험(檢驗)이라 하였다. 시체를 검안할 때는 『무원록(無冤錄)』에 정해진 방식 및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다. 『무원록』은 원(元)나라 사람 왕여(王與)가 편찬한 책으로, 시체를 검안하는 방식 및 절차, 살인 수법에 따라 시체에 나타나는 현상, 시체를 검안한 뒤 시장(屍帳)을 작성하는 방식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검관은 시체의 검안을 마치고 나면 시장을 작성하였다. 시장은 『무원록』의 규정에 따라 [사진-2]에 보이는 것처럼 시체의 앞면과 뒷면을 각각 그림으로 그리고, 시체의 부위마다 상처의 크기와 색깔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시장은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망한 사람의 가족에게 내주고, 1부는 검관이 보관하며, 1부는 검장에 첨부하여 상부에 올려보냈다.

검관은 시체를 검안하기 전과 검안을 마친 뒤에 각각 사

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였다.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란 사망한 사람의 친족인 시친(屍親), 시친이 살인자로 지목한 사람인 피고(被告), 살인사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인 간련인(干連人), 사건을 목격하거나 증언할 사람인 사증(詞證) 등을 말한다.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구속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검관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올릴 때는 구속했던 사람들의 명단도 함께 작성해 올렸다. 피의자가 살인 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농간이 개입한 경우 및 범인들이 서로 혐의를 상대에게 떠넘길 경우 등에는, 해당 사건이 살인사건인지의 여부 및 실제의 범인이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시체의 검안 및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검관이 조사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서울에서는 형조에,



[사진-2]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에 보이는 시장(屍帳).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지방에서는 감영에 보고하였다. 이때 작성하는 검장은 하급 관사에서 상급 관사에 보고할 때 사용하던 첩정(牒呈)이라는 문서의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검장에는 검관이 살인사건의 신고를 접수하고서 사건이 발생한 현장으로 출동한 과정부터 시작하여 시체를 검안한 절차 및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그리고 말미에는 사망의 실제 원인인 실인(實因) 및 정범(正犯)과 종범(從犯)을 구별하여 적었다. 실인은 현대의 사인(死因)과 같은 의미로, 실인이 무엇이나에 따라 살인사건이 성립될 수도 있고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살인사건에서 실인은 매우 중요하였다. 실제 살인을 저지른 주범인 정범과 살인에 가담하여 조력한 종범을 구별하는 기준은 실인으로 기록된 상처를 누가 입혔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상 살인사건의 시체 검안과 조사 과정 및 결과 보고 등 검험 절차는 아래의 [그림-1]과 같다. 전주군수 신대균이 전라도관찰사 이완용에게 올린 [사진-1] 초검장의 앞부분과 뒷부분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이달 16일 유시쯤에 전주군 난전면 신기리에 사는 이 소사가 그의 며느리 송 소사와 함께 고소하여 진술하기를, ‘저의 둘째 아들 황순일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용진면 용암리에 사는 5촌 당질 황성언에게 구타를 당한 뒤 오늘 자시쯤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용암리로 옮겨 놓고 우선 고발하니, 법에 따라 목숨으로 갚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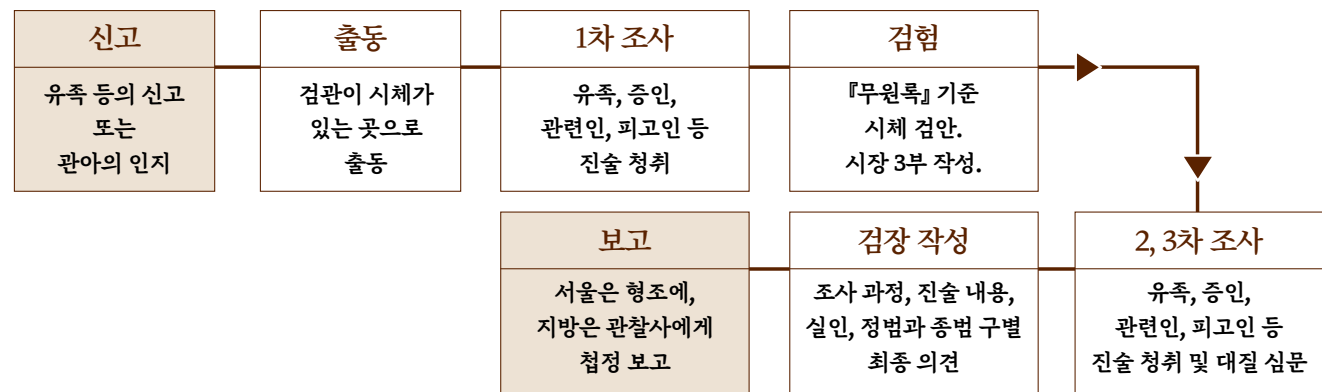
해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원통함을 풀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서 몹시 놀랍고 끔찍하여, 심문해야 할 사람들을 우선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에 군수인 제가 참석해야 할 관아의 아전과 오작인들을 거느리고서, 관아의 대문에서 동쪽으로 20리쯤 떨어진 용진면 용암리 사망한 남자 황순일의 시체가 놓여 있는 곳에 도착하여, 규정대로 시체를 검안하였습니다.

……실인(實因)은 ‘병환으로 사망함(病患致死)’으로 기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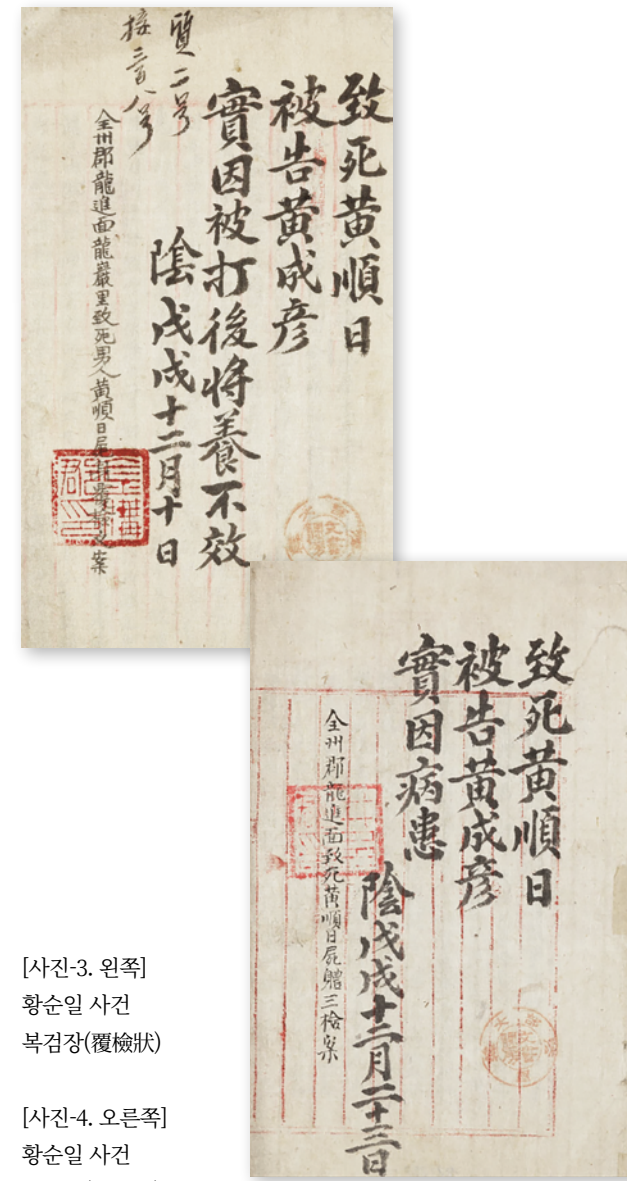
……황성언은 ‘피고(被告)’로 기록하였습니다. ……”

시친인 이 소사와 송 소사는 황성언의 구타가 원인이 되어 황순일이 죽게 되었으므로, 황순일의 죽음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황성언을 살인자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초검관인 전주군수 신대균은 황순일의 죽음을 살인사건으로 보지 않았고, 그에 따라 황성언을 살인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시체에 외상의 흔적은 있으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그래서 사망의 실제 원인인 실인을 ‘병환으로 사망함’으로 적고, 황성언을 정범이 아닌 ‘피고’라고 적은 것이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관원의 1차 검안이 끝나면, 2차 검안을 진행하였다. 서울에서는 한성부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해당 고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웃 고을 중에서 관찰사가 지정한 수령이 2차 검안을 진행하였



[그림-1] 살인사건의 조사 및 보고 절차



[사진-3. 왼쪽] 황순일 사건 복검장(覆檢狀)

[사진-4. 오른쪽] 황순일 사건 삼검장(三檢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다. 1차 검안과 조사를 초검(初檢)이라 하고 2차 검안과 조사를 복검(覆檢)이라 하였다. 복검을 마친 검관도 검장과 시장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였다. [사진-3]은 황순일의 사건에 대해 금구군수 서재우(徐載雨)가 복검을 마치고 나서 전라도관찰사 이완용에게 보고한 복검장이다. 복검관인 서재우는 황순일이 구타를 당한 뒤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아 실인을 ‘구타를 당한 뒤

에 요양을 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사망함[被打後將養不效致死]’이라고 적고, 황성언은 황순일을 구타하기는 하였으나 반드시 그 구타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로 기록하였다.

복검 결과가 초검 결과와 일치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서로 다를 경우에는 3차 검안을 진행하였다. 3차 검안과 조사를 삼검(三檢)이라 하였다. 황순일의 사건도 초검과 복검의 실인이 서로 달랐으므로 삼검을 시행하였는데, 삼검관인 정읍군수 오용선(吳用善)이 삼검을 마치고 나서 전라도관찰사 이완용에게 보고한 삼검장이 [사진-4]이다. 오용선은 황순일의 실인을 초검과 마찬가지로 ‘병환으로 사망함’이라 적고 황성언을 피고로 기록하였다. 살인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실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와 범인이 여럿일 경우에 정범을 누구로 보느냐였다. 삼검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사검(四檢)과 오검(五檢) 등을 차례로 진행하였다. 살인사건으로 판정되고 정범이 확정되면 국왕과 신하가 세 차례에 걸쳐 심리하는 계복(啓覆) 절차를 거쳤고, 계복에서도 사형이 확정되면 정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였다. 황순일 사건의 최종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세 차례 올린 검장과 시장의 내용으로 볼 때 살인사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 구타사건으로 처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장은 살인사건이 접수된 순간부터 시체 검안, 관련자 심문, 결론까지 일련의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한 보고서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반드시 실인과 정범·종범이 적혔다. 검장에는 반드시 시장이 첨부되었다. 시장은 일종의 시체검안서로, 시신의 앞·뒷면을 그림으로 남기고, 각 부위의 상처 크기와 색깔까지 세세하게 기록하였다. 검장에는 시장을 첨부하여 올렸기 때문에 시장을 검장에 포함시켜 이해하기도 하였다.

검장과 시장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 사회가 억울한 죽음을 막고자 했던 제도적 장치이자, 시체의 흔적에서 진실을 찾으려 했던 초기 과학수사의 산물이었다. 6

옛 조리서에 깃든 맛의 기억

양미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사

바야흐로 K-푸드의 전성시대다. 김치·불고기 같은 전통음식에서 김밥·라면 등의 일상음식까지, 이제 K-푸드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전 세계적 문화현상이 되었다. 실제로 2024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상당수(15.7%)는 ‘음식 경험’을 주요 방문 동기로 꼽았고¹ 현지에서도 정기적으로 한식당을 찾을 만큼² 한식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맛의 향연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수백 년에 걸쳐 다져진 조리 지식과 식재료에 대한 통찰, 삶의 경험, 그리고 음식에 대한 철학 등이 켜켜이 쌓여 오늘날의 한식을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맛의 궤적을 차분차분 되짚어 올라가다 보면, 결국 그 끝에서 선조들이 남긴 옛 조리서와 마주하게 된다.

식치(食治)와 팔정(八政): 조선시대 남성의 음식 기록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요리 전문서는 1450년경 전순의(全循義, ?~?)가 쓴 『산가요록(山家要錄)』이다. 하지만 『산가요록』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요리책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 성리학적 사유에서 음식은, 단순한 생리적 필요를 넘어 도덕적 실천의 매개체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을 탐하거나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군자(君子)의 태도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몸을 돌보고 [食治] 세상을 다스리는 데[八政] 음식이 중요하게 작용

하므로, 그 범주 내에서 음식의 성질과 쓰임을 논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앞서 소개한 『산가요록』은 조선 전기 음식 기록 가운데서도 ‘식치’의 관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저술이다. 찬자 전순의는 세종·문종·단종·세조 등 네 분의 임금을 모신 어의(御醫)로, ‘약식동원(藥食同源,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의 관점에서 인체의 허실을 보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실질적 도구로서 음식을 이해했다. 이러한 식치적 접근은 그의 또 다른 저술인 『식료찬요(食療纂要)』, 허준의 『동의보감(東醫寶鑑)』 등에서도 그대로 견지되었다.

한편, 음식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백성을 굶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먹이는 것은, 국가를 다스리는 8가지 큰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농업과 생활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흐름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산림경제(山林經濟)』·『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등의 백과사전적 농서(農書)가 다수 편찬되었다. 이 책들은 농업기술과 생활지식 전반을 아우르며 식재료의 재배·보관·활용법을 폭넓게 다루었고, 그 과정에서 실사구시적 태도와 생활 중심의 관심사가 결합해 음식에 관한 기록이 자연스럽게 축적되었다.

1. “외국인이 찾는 인기 급상승 한식, 불고기 아닌 ‘이 메뉴’”, 《Cook & Chef》, 2025. 11. 23.
2. “외국인 10명 중 6명 최근 1년 내 한식당 방문... ‘일상적 식사’ 늘어”, 《경향신문》, 2024. 6. 25.

생활 경험과 일상적 실천: 여성 조리서의 등장과 발전

조리 주체인 여성이 음식 기록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17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다. 여성 조리서는 남성 지식인이 쓴 백과사전적 저술과 달리, 실생활에서 익힌 조리 경험과 실천적 지식을 바탕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집안의 음식문화와 생활 지혜를 후대에 전승할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한글로 작성되었다.

현존하는 여성 조리서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600년대 중반에 쓰여진 「최씨음식법」과 『음식디미방』이다. 「최씨음식법」은 충남 아산지역의 신창맹씨 집안에서 전승되는 음식 기록으로, 270년간 집안의 노비 명단·편지·잡기·행장 등의 기록을 모은 『자손보전(子孫寶傳)』이라는 서첩(書帖)에 함께 수록되어 전한다. 인조 때 금산군수·장흥부사 등을 역임했던 맹세형(孟世衡, 1588~1656)의 부인 해주최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어 ‘최씨음식법’이라고 부른다. 맹세형의 묘갈명(墓碣銘)에 의하면, 그녀는 “성질이 단정하고 정숙하였으며 시어머니를 매우 공경하며 섬겼고 남편을 잘 내조하면서 근면과 검소로 집안을 유지하고 정성과 예절로 제사를 잘 받들었다.”고 한다.

「최씨음식법」이 1600년대 충청도 반가의 조리법을 담았다면, 『음식디미방』은 비슷한 시기 경상도 반가의 조

리법을 실었다. ‘음식디미방(飲食知味方)’은 문자 그대로 ‘음식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뜻이지만, 훗날 자손들이 ‘부녀자들의 길잡이’라는 의미로 『규근시의방(閨壺是議方)』이라는 표제(標題)를 붙였기 때문에 두 개의 명칭이 혼용되고 있다. 찬자인 장계향(張桂香, 1598~1680)은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19세에 재령이씨 종가의 며느리가 된 인물로, ‘여성군자’로 불릴 만큼 인품과 학식이 훌륭했다. 그녀는 시댁과 친정어머니에게 배운 146종의 음식 조리법을 다시 딸과 며느리에게 전승하기 위해 이 책을 저술하였는데, 뒤표지 안쪽에 ‘집필 후기’가 실려 있어서 책을 편찬한 시기와 집필 의도, 자손에 대한 당부 등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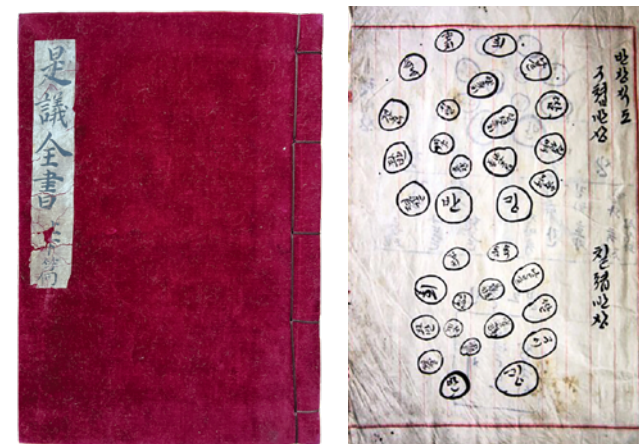
이 책을 이리 눈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이 뜻 잘 알아 이대로 시행하라.

딸자식들은 이 책을 베껴 가되 가져갈 생각을 말며

부디 상치 말게 간수하여 쉬이 떨어버리지 말라.

“눈 어두운데 간신히 썼”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 책은 장계향이 노년에 집필한 것으로 보이며, 대략 70세를 넘긴 1670년경으로 추정된다. 또한 힘들게 작성한 만큼 그 뜻을 헤아려 책과 집안의 음식법을 잘 보전하기를 바라는



『시의전서』 표지와 내지의 ‘반상식도’ (이상훈 소장)



『규합총서』의 표지와 수록 조리법

마음이 담겨 있다. 흥미로운 점은 딸은 책을 베껴가되 가져가지 말라는 당부인데, 집안을 떠나는 딸보다는 종가를 지키는 며느리에게 종가 음식법이 전해지는 게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 같다.

18~19세기로 접어들면서 여성들이 집필한 조리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1700년대 중후반에 쓰여진 『음식보』를 시작으로 『규합총서』·『주식시의』·『시의전서』 등이 시차를 두고 잇달아 만들어졌다. 그중 빙허각 이씨(憑虛閣 李氏, 1759~1824)가 쓴 『규합총서(閩閣叢書)』

는 조리법을 비롯해 누에치기·바느질·육아·구급법 등을 총망라하여, 후대에 ‘가정생활 백과사전’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이후 편제와 내용을 달리한 『간본 규합총서』, 『부인필지』 등 이본(異本)이 출현한 것으로 보아, 규방에서 널리 읽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00년대 말엽에 편찬된 『시의전서(是議全書)』는 422가지 음식과 함께 ‘반상식도’가 수록되어 있어서, 당시 양반가의 상차림 구성과 식문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호남 음식문화의 보고, 「음식보」와 「하심당가음식법」

서울·충청·영남지역에서 고조리서가 다수 발견된 것과 달리, 음식문화가 발달한 호남에서는 「음식보(飮食譜)」와 「하심당가음식법(下心堂家飮食法)」 정도만 확인될 뿐 옛 조리서의 전승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음식보」는 1981년 식품학자 이성우에 의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에는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필자, 집필 시기, 소장처 등을 특정하지 못한 채, 그저 ‘음식보’로 불렸다. 그러던 중 2021년 전남 나주의 풍산홍씨

창애공과 석애가문에서 소장 문서를 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탁하는 과정에서 「음식보」 원본이 발굴되었는데, 이를 통해 「음식보」가 독립된 조리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총 10편의 글을 모아 합본한 책의 일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복제 음식보 합부』 표지에서는 저자를 숙부인 진원오씨(1698~1770)와 숙부인 진주정씨(1736~1802)라고 기록하였다. 이들은 고부(姑婦) 사이로, ‘호남의 소동파’라 불렸던 석애 홍봉주(洪鳳周, 1725~1796)의 모친과 부인이다. 그러나 진원오씨와 진주정씨 외에 홍봉주가 일부 글을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³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를 이어 집필하였기에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기록을 종합해 볼 때 그들이 생존해 있었던 1750년대 무렵으로 추정된다. 「음식보」에는 술·편(떡)·만두·정과·침채·저장음식 등 총 38가지 음식 조리법이 수록되어 있다.

「하심당가음식법」은 전남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에 소재한 홍주송씨 하심당 종가의 음식 기록으로, 2023년에 발견되었다. 본래는 온전한 형태의 서책이었을 것이지만, 현재는 7장 13쪽의 낱장 형태의 문서로 존재한다. ‘하심당가음식법’이라는 명칭도 원전에 기록된 표제가 아니라, 임의로 붙인 가칭이다. 필사된 시기는 1800년 후반~1900년 초반으로 추정되며, 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술·정과·만두 등 총 14종의 음식이 실려 있다.

저술된 시기는 다르지만, 「음식보」와 「하심당가음식법」은 지역어와 지역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음식보」의 경우 뽕쌀과 송어새끼의 지역 방언인 ‘모쌀’, ‘모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하심당가음식법」에서도 ‘효주’, ‘모쌀’, ‘너럭지’, ‘동침지’, ‘식궤’ 등의 전라도 방언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죽순, 생강, 동아, 석화 등과 같이 예로부터 전남지역 특산물로 유명한

식재료들을 적극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음식보」와 「하심당가음식법」은 호남지역에서 집필된 것이 확실하다. 또한 조선시대 조리서 중에는 기존 음식서를 그대로 베껴 서술한 경우가 꽤 있는데, 「음식보」와 「하심당가음식법」은 기존 문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필자가 직접 경험하거나 소화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호남 조리서에는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음식, 조리법의 변천을 짐작케 하는 음식 등이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음식보」에는 석화누르미·동화누르미·쇠고기누르미 등 세 종류의 누르미가 등장한다. 본래 누르미는 꼬치에 꿰어 직화로 굽다가 밀가루즙을 곁죽하게 끼얹어 만드는데, 「음식보」에서는 밀가루즙 대신 참깨를 갈아 만든 마리즙(마티즙)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난적이나 잡채를 만들 때에도 마지막에 마리즙을 치라는 것으로 보아, 당시 지역에서 유행했거나 집안에서 자주 해 먹는 방식이었던 것 같다. 이외에도 뜨거운 모래 위에서 굽는 소병, 교자와 상화가 합쳐진 교의상화, 지금도 전남지역의 대표 떡으로 일컬어지는 유화전(쑥굴레) 같은 음식이 기록되어 전한다. 이처럼, 「음식보」와 「하심당가음식법」은 지역 음식문화의 역사적 층위를 복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자, 한국 음식문화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라 할 것이다. 6



『오복제 음식보 합부』 표지와 내지에 수록된 석화·쇠고기·동아 누르미 조리법. 아래는 수록 조리법에 따라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음식보 재현사업으로 만든 ‘동화 누르미’.

참고문헌
 - 박채린, 「신창 맹씨 종가 「자손보전」에 수록된 한글조리서 「최씨 음식법」의 내용과 가치」,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0(2),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015.
 - 박채린, 「18세기 호남 조리서 「음식보」 재판독 및 해석」, 『한국학』 46(3), 2023.
 - 유춘동, 「호남의 한글조리서 「음식보」의 보론(補論)」, 『어문논총』 40, 2022.
 - 이래호, 「『오복제 음식보 합부』에 관한 재논의」, 『한민족어문학』 107, 2025.
 - 한복려·한복진·이소영, 『음식고전』, 현암사, 2016.

3. 이래호, 「『오복제 음식보 합부』에 관한 재논의」, 『한민족어문학』 107, 2025.

뜻밖의 죽음을 달래고 기억하며 재난을 품어내는 공동체의 측은지심

박종오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災 難

원치 않은 일 : 재난(災難)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재앙과 고난을 만나는 경우가 생긴다. 우리는 이를 재난(災難)이라 부른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재난이란 단어에 관해 [명사]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 [유의어] 곤란, 재액, 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자사전》에는 '뜻밖의 일어나는 불행(不幸)한 일'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 용어로 재난(Disaster)은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일상적인 절차나 지원을 통하여 관리될 수 없는 심각한 대규모의 사망자, 부상자, 재산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통 예측 가능성이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규정한다. 재난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원치 않은 일'이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찌 보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다 재난이라 할 수 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바닷사람들에게 바다와 관련된 재난은 다양하다. 흥어(凶漁) 등 어로(漁撈)와 관련된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난파(難破) 등 어선(漁船)과 관련된 재난이 있을 수도 있다. 또는 표류(源流) 등 항해(航海)와 관련된 재난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러한 재난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들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에 비해 죽음은 '삶을 마감한다.'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재난이라 할 수 있다.

이여씨나 이여도씨나 (이여씨나 이여도씨나)
혼백상자 등에다지곡 (혼백상자 등에다 지고)
가심앞이 두령박차고 (가슴 앞에 두령박- 테왁- 대고)
.....
너른바당 앞을재연 (너른 바다 앞을 재어)
한질두질 들어간난 (한길두길 들어가니)

저승질이 왓닥갓닥 (저승길이 오락가락)
.....
탕대기는 칠성판아 (타고 다니는 칠성판아)
이영사는 맹정포야 (이어 사는 맹정포야)

『이여이여이여도사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10, 80~8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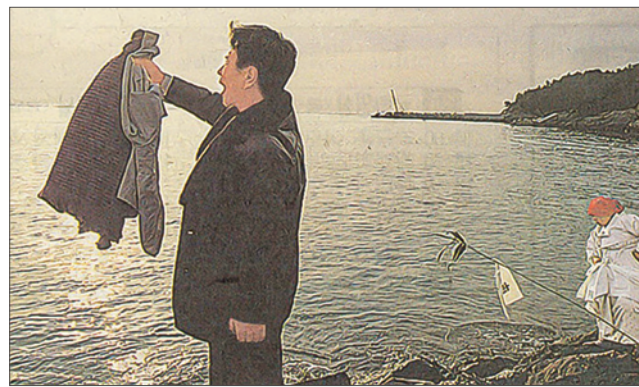
제주도 해녀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거나 들어오면서 노를 저을 때 불렀던 민요 <이여도사나> 중 일부이다. 혼을 담아두는 혼백 상자(魂帛箱子)를 등에다 지고, 깊은 물 속 저승길을 찾아 들어가는 듯한 해녀 자신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시체를 안치하는 칠성판, 죽은 사람의 관직이나 성씨를 기록하는 명정, 그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처럼 행하는 물질. 내려가는 길은 눈물이고 올라와 쉬는 '숨비소리'는 한숨이 되는 삶, 해녀에게 바다는 살아 있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셈이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죽음', 그것도 예측하지 못한 '급사(急死)'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이는 준비된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준비된 죽음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오직 하겠는가? 이러한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필연적으로 원망을 만들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재난을 만들어낸다. 이런 까닭에 조선시대에는 비명횡사한 원혼들을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여제(厲祭)를 거행, 원한을 풀어줌으로써 인간들의 삶에 해(害)를 끼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였다.

收 拾

죽음을 확인 : 수습(收拾)

육지를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 비해 바다를 기반으로 삶을 영위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땅에 비해 바다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힘을 지녔고, 인간이



위.1930년대 진도 조도에 온 제주 해녀 배 ©장경민.
아래. 진도군 의신면에서 행한 <넋건지기 굿>의 한 장면
(동아일보, 1997.09.22.)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잦은 풍랑(風浪)과 해일(海溢) 등은 차치하더라도 배 혹은 물속이라는 작업 공간 자체가 죽음과 맞닿아 있는 곳이다.

물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수사자(水死者) 혹은 익사자(溺死者)라고 한다. 수사자가 발생하면 일단 시신을 찾았는지가 중요하다. 시신을 찾았다면 장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신을 찾지 못한다면 시신을 찾기 위해 일정 기간을 기다린다.

우리 민족은 시신을 찾지 못해 장례를 치르지 못한 사

람을 정상적으로 타계에 갈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다. 따라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시체를 찾아 제대로 장례를 치러줘야만 타계로 편입할 수 있다. 시신을 찾더라도 수사자의 시신은 객사(客死)한 것이기에 집에 들이지 않는다. 만일 시신을 집으로 들인다면 대문이 아닌 울타리를 뚫고 들인다. 객사한 이의 시신을 집안에 들일 때 울타리를 뚫고 들이는 것은 비단 수사자만은 아니다. 자기 집이 아닌 밖에서 이루어지는 횡사(橫死), 변사(變死), 객사(客死) 등은 모두 비정상적인 죽음이라 여긴다. 따라서 마을 입구에 시신을 안치하기도 하고, 혹은 죽은 장소에서 초상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

죽은 이의 시신은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물에 떠오르고, 물가로 밀려온다고 한다. 이렇게 시신이 물에 떠오르거나 밀려오면 이를 건져 장례(葬禮)를 치르기도 한다. 그런데 죽은 이가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라면 일반적인 매장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장례를 치른다. 시신을 운반하는데도 상여가 사용되지 않고 사다리를 이용하였고,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돌을 쌓아 덮었다. 이른바 “독다물”이라는 방법이다. 시신을 땅에 묻는 매장(埋葬) 대신 돌로 덮어주는 것은 비정상적인 죽음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이 작용하여 사체를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선택한 방식으로 보인다.

반면에 죽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수사체(水死體)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물속에 잠겨 있는 시신을 말한다. 수사체는 수습하여 육지로 옮겨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주변에 알려 신원을 확인한다. 만일 시신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예전에는 초분(草墳)으로 가묘(假墓)를 만들었기도 하고, 공동산 등에 묻어주기도 하였다.

시신을 찾는 경우는 그나마 장례를 치를 수 있어 불행 중 다행이라 여긴다. 반면 시신이 유실되어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수사자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다만, 혼을 불러 죽음을 확인하거나 위로해 주는 것들은 의례를 통해 가능해지기도 한다.

慰勞

죽음을 달램 : 위로(慰勞)

어촌에서는 수사자를 위한 의례를 각별하게 여긴다. 죽음 직후에 혼을 건지는 의례가 있고, 세시풍속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모셔지는 유왕제(혹은 용왕제)도 있다. 마을 공동체에서 지내는 당제(堂)의 일환으로 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 지역 단위로 수행하던 수륙제(水陸齋)도 있다. 가족에 의해 개별적으로 물에 빠져 죽은 이의 넋을 물속에서 건져 내어 그 한을 풀어주고 영혼을 씻겨 주는 혼(넋)건지기굿을 할 수도 있고, 공동체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또는 별도로 지내는 의례를 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공동체에서 행하는 의례가 많다는 것은 수사(水死)에 대한 인식 자체가 개인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바다라는 곳이 재난 위험이 상존(常存)하고, 순간 죽음이 머무는 공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중고혼(水中孤魂)으로 범칭 되는 존재를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의례를 행하는 것이다.

공동체에서 행하는 의례가 많다는 것은 수사(水死)에 대한 인식 자체가 개인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바다라는 곳이 재난 위험이 상존(常存)하고, 순간 죽음이 머무는 공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중고혼(水中孤魂)으로 범칭 되는 존재를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의례를 행하는 것이다.



신안군 낙월도의 초분 (2011년, 필자)

혼건지기굿이나 무혼굿 등은 수사자의 영혼(靈魂)을 건져 올려 천도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다.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에게 물에서 죽은 자의 영혼을 청해 모신 후에 그 영혼을 위로하고 달래서 천도시키는 절차들이 펼쳐진다. 수사자를 위한 공동체 의례는 선달그믐이나 대보름에 지내는 ‘유왕제’ 외에도 마을굿 말미에 결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상당제(上堂祭)를 지낸 다음에 조상 중에 수사자가 있는 집에서 제상을 가지고 나와 바닷가에 진열해 놓고 제를 지낸다. 또한 서해안 일대에서 주로 전승되는 수륙제가 있다. 그 이름으로 볼 때 불교적 관념이 수용되고 용어 차용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되는데, 개인 단위와 공동체 단위의 형태 두 가지가 있다.

혼(넋)건지기는 집안의 가신(家神)을 좌정시키는 것으로 시작하여 넋건지기, 해원의 순서로 베풀어진다. 집안에서 여러 신령을 모시고 굿을 하는 것은 넋을 건지는 것이 어려우므로 여러 신령이 합심해서 도와주기를 바라

는 마음에서 행하는 것이다. 낮은 수사한 장소에서 건지는데, 가까운 바다일 경우 배를 타고 사고가 난 지점까지 나가지만, 먼바다라면 마을 앞 선창에서 한다. 시신을 건지지 못한 경우에는 미리 사망 지점에 닭 등을 빠뜨려 본다. 닭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같은 곳을 빙빙 돌기도 하는데, 그곳에 망자의 시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시신이 있는 곳이 확인되면 먼저 시신을 건지고 그 후에 낚을 건지기도 한다.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낚을 건져서 그것을 시신으로 삼아 매장한다.

시신을 찾지 못한 수사자를 매장하기 위한 혼(넋)건지기에는 육체혼(肉體魂) 관념과 자유혼(自由魂) 관념이 동시에 나타난다. 자유혼은 육체가 생존할 때도 자유로이

육체를 떠날 수 있고, 육체의 사멸 이후에도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거나 다시 태어난다고 여기는 관념이다. 죽 육체를 찾지 못하더라도 영혼은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영혼을 시신으로 삼아 매장을 하는 것이다. 이때는 밤나무를 고인의 형상으로 깎은 후 몸통 가운데에 고인의 생년월일을 쓰고 땅에 묻는다. 이를 ‘초혼장(招魂葬)’이라고 한다.

수사자를 위한 낚 건지기는 매장을 위한 대용물을 찾기 위한 의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매장 절차를 끝내면 조상신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제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을 못하고 죽은 사람이나 후손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제사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진도 팽목항 조형물

記憶

죽음을 담음 : 기억(記憶)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가짐은 환경이나 조건, 사회적 위치 등을 떠나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항상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바닷사람들이 수사자를 대하는 마음은 더 각별했

을 것으로 여겨진다. 수사자를 찾고, 수사체를 인양해 주고, 수사자를 위로하는 모든 행위는 ‘애뜻함’과 ‘불쌍함’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맹자(孟子, 기원전 372~289)가 말한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이해된다.

“지금 갑자기 어린아이가 막 우물 속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는 모두가 깜짝 놀라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惻隱]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분(交分)을 맺기 위해서도 아니며 그렇게 함으로써 고을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며, 그런 어린아이를 구하지 않았을 때 듣게 될 비난을 싫어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측은해하는 마음인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자신의 악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악을 미워하는 마음인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인 사양지심(辭讓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인 시비지심(是非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지심은 인(仁)의 단서이고, 수오지심은 의(義)의 단서이고 사양지심은 예(禮)의 단서이며 시비지심은 지(智)의 단서이다.”(“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 非所以要譽於鄉黨朋友也 非惡其聲而然也 由是觀之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孟子』, 公孫丑(上)

‘어린아이가 우물 속에 빠지려는 시점에서 어떠한 이해관계를 계산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찰나의 순간에 진

정으로 절박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생겨난다. 이것을 바탕으로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들 자신에게 어떠한 사적인 이해득실을 따질 것을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측은지심이라 한다.

바닷사람들이 수사자를 보며 생겨나는 마음은 바로 이 측은지심일 것이다. 어떤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마음에서 우러난 ‘무조건(無條件)’이 우선(于先)이다. 그러기에 수사자를 건져야 하고, 수사체를 인양해야 하는 것이다. 혼(넋)이라도 건져 장례를 치러줘야 하는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욕심 또는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모른척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고 맹자는 말한다. 수사자를 구하는 바닷사람들의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며 이 행동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적어도 물에 빠진 사람을 혹은 수사체를 구할 때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은지심은 수사자에 대한 수습 행위에도 나타나고, 해원(解冤)의 마음을 표현하는 의례(儀禮)에서도 나타난다. 장례를 치르지 못한 수사자가 부모나 형제자매들에게 제사 의례를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공동체에서 의례의 대상으로 대접받는다. 이는 수사자에 대한 기억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바닷사람들은 마음을 다해 수사체를 수습하고, 의례를 통해 죽은 자를 위로한다. 이야기를 통해 끊임없이 사건을 기억하고자 노력한다. 측은지심에 기반한 ‘수습’과 ‘위로’, 그리고 ‘기억’이라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재난을 극복하고, 또 예방하고 있는 셈이다. ☺

본 글은 필자의 논문 「해양 재난에 대처하는 바닷사람들의 자세」(『실천민속학연구』 33호, 실천민속학회, 2019)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책으로 만나는 나주 누정 羅州樓亭

조일형 한국학호남진흥원 책임연구위원



‘호남 한국학 누정 자료집 총서’ 첫 번째 책으로 출판
50개소 해제, 사진, 현판 탈초·번역 작업 수행 결과 수록

나주 지역 누정 문화유산 지정 목록

- 쌍계정(雙溪亭)** 1280년 창건
노안면 금안리 /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1973. 4. 21. 지정)
- 벽류정(碧流亭)** 1429년 창건
세지면 벽산리 /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1992. 11. 30. 지정)
- 석서정(陟西亭)** 1915년 창건
노안면 금안리 / 전라남도 민속문화유산(2024. 10. 14. 지정)
나주시 향토문화유산(2022. 6. 29. 지정)
- 영모정(永慕亭)** 1519년 창건
다시면 회진리 / 전라남도 기념물(1987. 6. 1. 지정)
- 만호정(挽湖亭)** 1561년 창건
봉황면 철천리 / 전라남도 기념물(1992. 11. 30. 지정)
- 장춘정(藏春亭)** 1561년 창건
다시면 죽산리 / 전라남도 기념물(2002. 4. 19. 지정)
- 기오정(寄傲亭)** 1669년 창건
다시면 회진리 / 전라남도 문화유산자료(2008. 4. 11. 지정)
- 금사정(錦社亭)** 1519년 창건
왕곡면 송죽리 / 나주시 향토문화유산(2011. 7. 26. 지정)
- 양벽정(漾碧亭)** 1587년 창건
다도면 풍산리 / 나주시 향토문화유산(2013. 11. 11. 지정)

계동에 1개소, 남내동에 2개소, 남평읍에 1개소, 노안면에 7개소, 다도면에 5개소, 다시면에 14개소, 동강면에 1개소, 문평면에 2개소, 반남면에 2개소, 산포면에 1개소, 세지면에 10개소, 왕곡면에 3개소, 봉황면에 7개소가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면이 14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다음으로 세지면, 봉황면, 노안면, 공산면 순이다.

2022년 조사 첫 해에는 광주·영광·전주 지역 70개소 누정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였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나주 지역 50여 개소의 누정 조사와 연구를 추진하였다. 모정이나 제향의 성격이 강한 누정 그리고 학당으로 운영된 누정은 일단 제외하였고 목록에는 현존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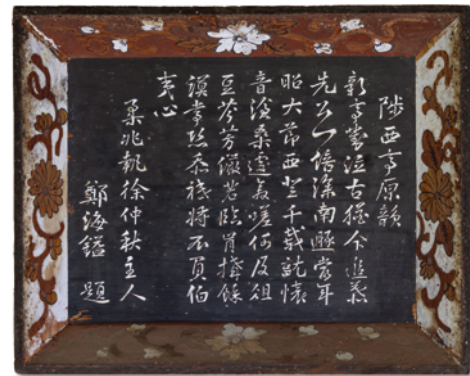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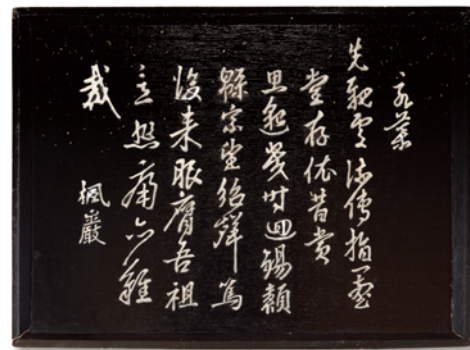
한국학호남진흥원은 202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호남 누정·원림 종합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보완과 호남 누정·원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및 집대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한국학누정자료집1-나주 누정』 편을 2025년 발간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의 「호남 누정·원림 종합 조사연구 사업」은 이전에 진행된 지역 누정연구를 토대로 이어졌다. 기존 연구 중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는 (사)광주·전남 지역개발협회의 지원을 받아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원(현 호남학연구원)가 추진한 「전남·전북지역 누정조사」이다. 「전남·전북지역 누정조사」는 호남 누정에 대한 현장 조사를 처음으로 추진하여 누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호남 누정의 종합적인 연구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00년대 이후 호남한문고전연구실(현 호남지방문화연구소)에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광주·담양·화순·나주·곡성·고흥에 소재한 누정과 사찰의 현판과 시판 1,450여 점을 기초 DB화하여 ‘호남기록문화유산’이라는 사이트에 탑재하였다. 또 2015년에는 『호남누정 기초목록』을 간행하였다. 이 목록집은 『전라도읍지』·『여지도서』·『한국읍지총람』 및 20세기 지방지 등을 참고하고 비현존 누정까지 포함하여 호남지역 총 3,742개소의 누정에 대한 정보를 누정명, 창건자, 창건시기, 누정위치 등으로 간단히 수록하였다.

위의 두 연구에 기초하여 2022년 「호남 누정·원림 종합 조사연구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호남지역 누정 총목록을 작성하였는데 현존 누정은 1,025개소, 비현존 누정은 1,372개소로 잠정 집계하였다.

‘호남지역 누정 총목록’에 따르면 나주 지역은 63개소의 누정이 현존한다. 공산면에 6개소, 과원동에 1개소, 금



되어 있으나 이미 훼손되어 사라지고 없는 누정도 제외하였다. 49개소 나주 누정 영상이 '호남학TV'에 탑재되었으며 번역과 해제 등 기초 자료는 앞으로 한국학호남진흥원 누리집 '호남국학종합DB'에 탑재될 예정이다.

2023년 전라남도에서는 누정·원림과 향약 자료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 검토를 전남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다. 또 2025년에는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등재 기반 조성 사업을 본원에서 추진하도록 하였다. 미약하지만 누정·원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호남한국학 누정자료집 총서를 기획하게 되었고 그 첫 번째 순서로 『나주 누정』을 간행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나주 누정 현판에 대한 사진 촬영과 탈초 및 정서, 번역 등 기초 자료가 구축된 것이 나주를 첫 번째로 선정한 이유이다.

나주의 누정 중에서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누정을 우선 후보로 선별하였는데, 국가문화유산청 지정문화유산 등급 순서를 살펴보면 시도유형문화유산, 시도민속문화유산, 시도기념물, 시도문화유산자료, 향토문화유산의 순이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은 벽류정과 쌍계정이며, 전라남도 민속문화유산은 척서정이고 전라남도 기념물은 장춘정, 만호정, 영모정이다. 전라남도 문화유산자료는 기오정이며 나주시 향토문화유산은 금사정, 소요정, 양벽정, 영호정 4곳이다.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4곳 중에 가장 최근에 지정된 소요정과 학당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영호정은 제외하고 금사정과 양벽정을 선정하여 총 9곳의 누정을 선별하였다.

이 책의 배열 순서는 먼저 문화유산을 등급별로 배열하였고 등급이 같으면 창건 연도가 빠른 것부터 배열하였으

2023년~2024년 호남 누정원림 종합조사 연구사업 나주 지역 결과물

사업내용	2023	2024
누정 영상	30개소(호남학TV 탑재) 남파정, 남사정, 보산정사, 기오정, 영모정, 아우정, 창주정, 소요정, 장춘정, 석관정, 칠두정, 금강정, 수산정, 계은정, 양벽정, 영호정, 관약재, 연계정, 영춘정, 벽류정, 귀래정, 만향정, 쌍계정, 척서정, 금사정, 만호정, 반계정, 정수루, 탁사정, 망화루	19개소(호남학 TV 탑재) 경승재, 원사정, 삼행정, 영사재, 경모재, 관계정, 남덕정, 담락당, 돈목재, 모남정, 반계재, 사경재, 산계정, 송산정사, 수우시정, 운곡정, 장춘재, 최고정, 추원당
사진 촬영	912컷	541컷 * 영풍정, 운함정, 원사정, 자미정, 추원재 추가
누정 해제	인문, 건축 분야	인문분야 * 건축분야 : 25년 완료
누정현판 탈초 및 정서	80,000자	25,000자
누정현판 번역	10개소 계은정, 관약재, 금사정, 기오정, 남사정, 남파정, 만향정, 만호정, 망화정, 반계정	12개소 보산정사, 영모정, 아우정, 창주정, 소요정, 장춘정, 석관정, 정수루 * 벽류정, 수산정, 양벽정, 영호정: 25년 완료

나주지역 누정 총목록

행정구역	분포 수	누정명
공산면	6	경승재, 금강정, 서경재, 수산정, 오호정, 원사정
과원동	1	망화루
금계동	1	정수루
남내동	2	최고정, 팔각정
남평읍	1	탁사정
노안면	7	귀래정, 만향정, 수우시정, 쌍계정, 송산정사, 영풍정, 척서정
다도면	5	계은정, 모남정, 양벽정, 영호정, 화수정
다시면	14	기오정, 남파정, 남사정, 돈목재, 보산정사, 석관정, 소요정, 아우정, 연정, 영모정, 영사재, 장춘정, 창주정, 칠두정
동강면	1	경모재
문평면	2	사벽정, 추원당
반남면	2	반계정, 자미정
산포면	1	모충재
세지면	10	고암, 관계정, 관약재, 담락정, 반계재, 벽류정, 산계정, 어촌정, 연계정, 영춘정
왕곡면	3	금사정, 영모재, 추원재
봉황면	7	남덕정, 만호정, 모정, 삼행정, 운곡정, 운함정, 장춘재
15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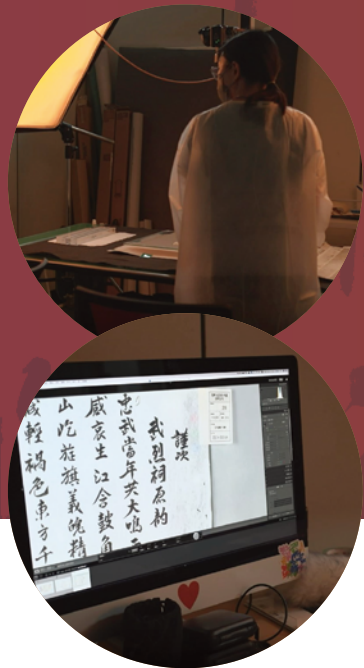
며 창건 연도도 같으면 문화유산으로 먼저 지정된 곳을 앞서 배열하였다.

『호남한국학 누정자료집1-나주 누정』에 수록된 9곳 누정의 창건 시기는 13세기인 1280년에서부터 20세기 초인 1915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누정의 성격도 각기 고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문인들이 교류하던 사교의 공간이자 추모와 기념의 장소이며, 학문을 연마하고 덕성을 함양하는 수양의 공간이자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휴식의 공간이기도 했다. 또한 향약과 동계의 규약을 실천하며 유교문화를 구현하는 공동체 공간이었고, 절의를 지킨 선비들이 정계에서 물러나 심신을 수양하던 은거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은 누정이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지역 사회의 정신문화와 생활세계가 응축된 복합적 문화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누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그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명확히 규명하고, 향후 세계유산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호남 한국학 자료가 소중한 가치를 찾고 오늘의 의미로 다시 태어나는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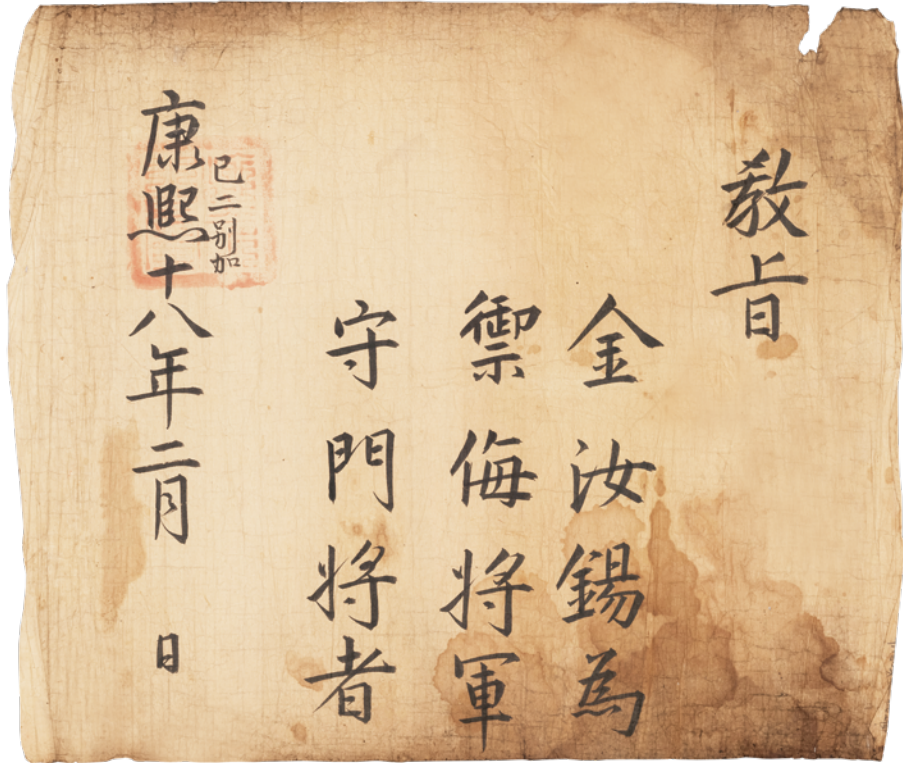


1 개인 문중 소장 자료 기증·기탁
소장처 방문
자료 열람 및 정리
고서 자료 분류 및 목록 작업

2 수장고 기초 작업
훈증 소독, 해충·유해균 제거
먼지 제거 및 평판 작업
규격 측정, 고유번호 부여

3 자료관리 고도화 작업
고화질 사진 촬영·이미지 자료 생성
소장 관리 시스템 등록

4 귀중 자료 선별과 문화 유산 지정
전문가 연구, 자료 가치 검토
선별 귀중 자료 등급별 관리
문화유산 지정 추진
문화유산 자료의 국보 승격 노력



1679년 김여석 고신 金汝錫 告身

먼지 앉은 호남 기록 유산 소중한 문화 유산으로 재 탄생

고문서 가치 지키고, 자리매김 위해 전문 수장, 연구, 문화 유산 등록

조광현 한국학호남진흥원 책임연구위원

한국학호남진흥원은 2018년, 민간에 흩어져 훼손과 멸실의 위기에 놓인 기록유산을 수집·보존하고 한국학 연구를 진흥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이후 꾸준한 노력 끝에 2025년 현재, 10만 점에 이르는 방대한 한국학 자료를 수집했다. 이 가운데에는 오랜 세월 속에 묻혀 있던, 말 그대로 '모래 속의 진주'와 같은 문화유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한국학호남진흥원 수장고에는 총 18건 2,161점의 문화유산이 최적의 보존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 문화유산이 17건 2,143점, 광주광역시 문화유산이 1건 18점이며, 유형별로는 유형문화유산 13건 1,764점, 문화유산자료 1건 265점, 향토문화유산 4건 132점이다.(그림 1)

특히 주목할 점은, 본원에 기증·기탁된 이후 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지정된 자료가 6건 1,456점으로, 전체 문화유산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2021년 영광 정호남 관련 고문서와 강진 군자서원 고문서 일괄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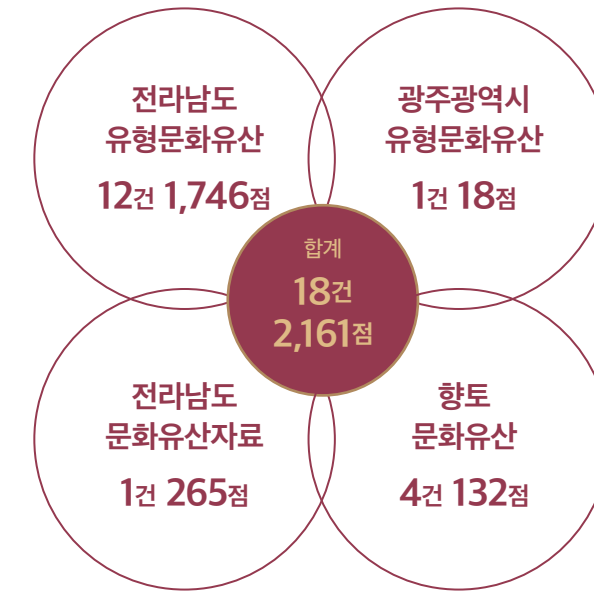


그림 1. 한국학호남진흥원 문화유산 보유현황

년에는 나주 풍산홍씨 석애문중 고문서 등 3건이 한 해에 모두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본원에 가장 먼저 기탁된 장성 행주기씨 금강문중 자료는 1천 점이 넘는 고문서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2025년에도 고흥 여양진씨 무열사 고문서가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그림 2)

이들 문화유산은 일반 자료와 구분하여 별도의 공간에서 일정한 온·습도 환경을 유지하며 보관되고 있다. 매년 정기적인 자료 실사를 통해 상태를 점검하고 훼손 여부를 면밀히 기록해 향후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 3회 이상 수장고 소독을 실시해 해충과 유해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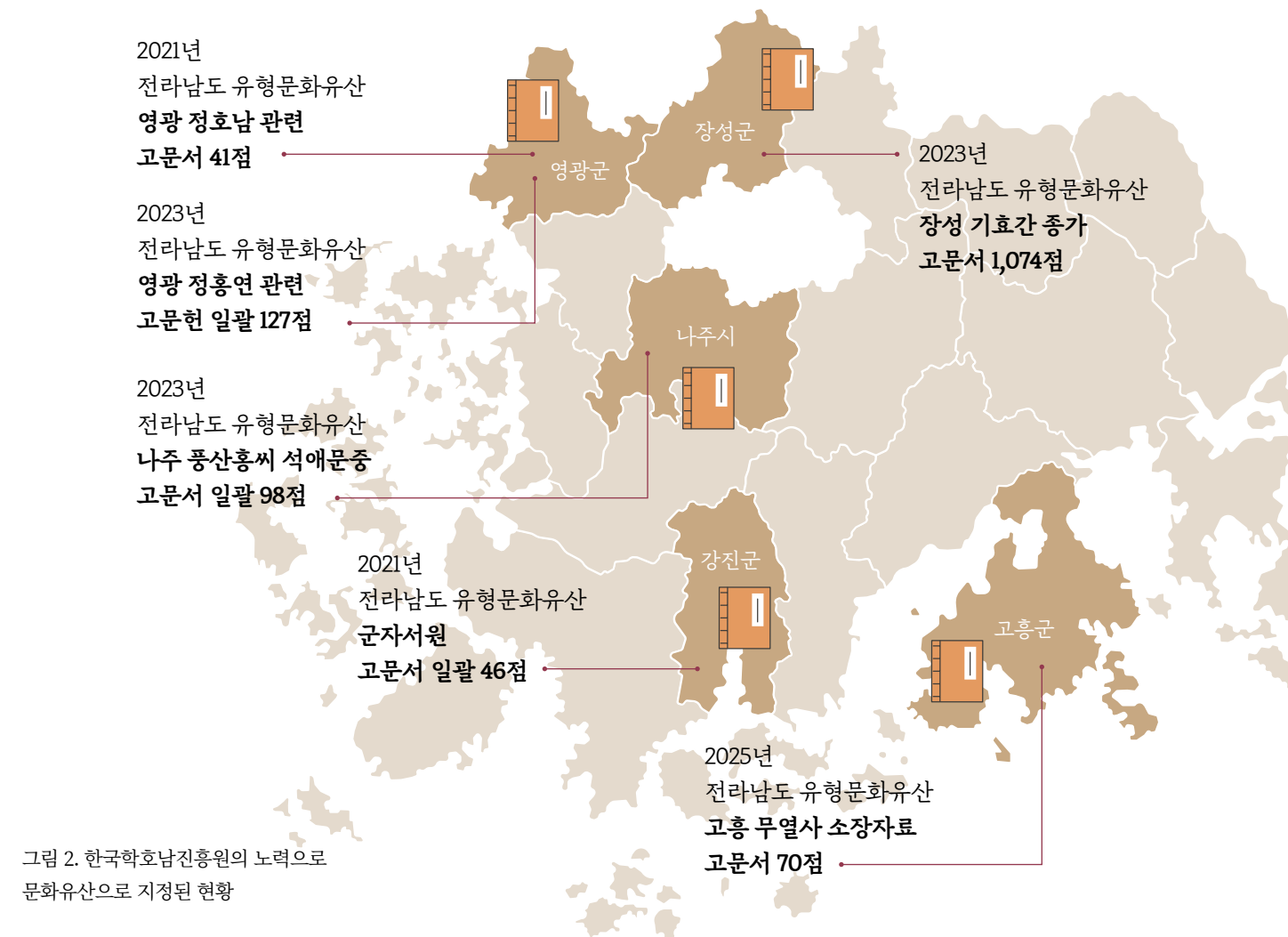


그림 2. 한국학호남진흥원의 노력으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현황

사라질 뻔한 기록을 보존하다



자료 클리닝 및 평판



자료 규격 측정 및 고유번호 부여

문화유산으로 탄생하다



문화유산 심의 중인 자료(동래정씨 정흥연가)



문화유산 심의 중인 자료(행주기씨 금강종가)

한국학호남진흥원의 노력은 이미 지정된 문화유산에 그치지 않는다. 아직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료들 역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 과정은 크게 세 단계다.

먼저 1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정비하는 기초 작업을 진행한다. 밀폐된 수장고에서 훈증소독을 실시해 해충과 유해균을 제거하고, 연구원이 자료 하나하나를 살피며 먼지를 제거하고 구겨진 부분을 펴는 평판 작업을 수행한다. 이후 규격을 측정하고 고유 번호를 부여해 자료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분실을 방지한다.

2단계는 자료 관리의 고도화 과정이다. 박사급 전문가들이 기초정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해 목록화를 진행하고, 고화질 촬영을 통해 이미지 자료를 생성한다. 이렇

게 구축된 정보는 소장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3단계는 귀중자료 선별 과정이다. 목록과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료집 간행, 학술대회 개최, 전시 등에 활용할 자료를 선정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귀중본 조사를 통해 자료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선별된 귀중자료는 등급별로 관리되며, 향후 문화유산 지정 대상 후보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문화유산 지정 절차를 밟고 있거나 준비 중인 자료도 있다. 광주 법륜사 소장자료 2점은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지정을 추진 중이며, 나주 쌍계정 금안동계 문서 일괄, 강진 김해김씨 김수연 왕지, 광주향교 소장자료 등은 유형문화유산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유형문화유산 지정 준비중인 나주 쌍계정 금안동계 문서 『동중좌목』



보물 승격 대상인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 수은 강항의 『간양록』

아울러 본원은 이미 시·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료를 국가유산인 보물로 승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유산인 고봉 기대승 문적 중 『양선생문답첩』과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인 수은 강항의 『간양록』은 그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검증해 보물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 곳곳에 흩어져 있던 기록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과 연구를 통해 그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왔다. 앞으로도 미래 속에 숨은 진주를 찾아내는 마음으로 문화유산 지정과 승격에 힘을 계획이다. 2026년에는 귀중본 조사를 통한 등급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문화유산 지정 학술집담회를 개최해 국가유산 지정과 승격을 둘러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양선생문답첩』 보물 승격 학술대회 개최



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에 업로드된 '조선 최대의 사상 로맨스, 양선생문답첩'

옛 기록을 한데 모으고, 소통하며 오늘의 의미를 찾는 다양한 노력

호남 국학 종합 DB 구축과 소통, 대중적 콘텐츠 제작

강동석 한국학호남진흥원 책임연구위원

한국학호남진흥원은 2019년부터 문체부로부터 25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아 '호남 국학 종합DB'를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그간 고문서 상세해제 3만여 점, 원문입력 7백만여 자, 국역 6천여 매, 태깅 4만여 매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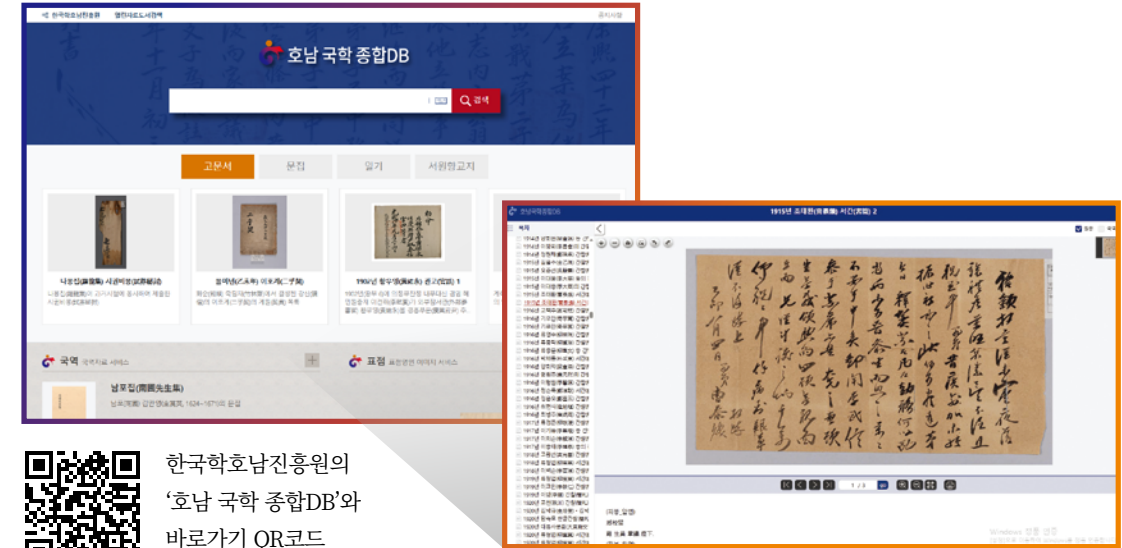
2025년 한 해에는 기관의 소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의 ID를 통일하고, 종합DB 내 고문서 616건, 고서 10건의 오류를 수정하는 등 신뢰도 있는 웹서비스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향후에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료를 집적한 향약, 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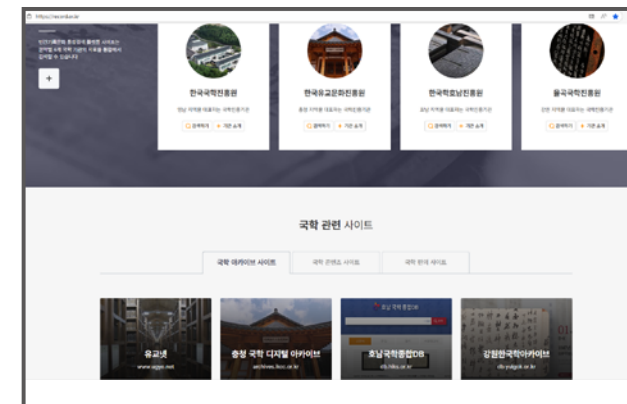
정, 금석문, 일기 등 특화콘텐츠 구축을 위해 홈페이지 리뉴얼을 기획하고 있으며 AI 검색으로 나아가기 위한 검색 기능 강화, 통계를 통한 특정 자료의 보완 등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중요 자료를 선별하여 탈초 및 번역, 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병 자료 수집과 더불어 2022년부터는 남도 의병 자료 및 한말 남도 의병 유적지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 동·서부 남도 의병 자료 1,427건과 한말 남도 의병 유적지 177개소 및 서훈자 360명을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2024 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



한국학호남진흥원의 '호남 국학 종합DB'와 바로가기 QR코드



품 사업을 위해 '조선 최대의 사상 로맨스, 양선생문답첩'이라는 타이틀로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구현한 바 있다. 2025 사업에서는 돌이나 금속에 새긴 글뿐만 아니라 나무나 도자기 등에 새긴 명문까지 포함한 금석문을 조사하여 자료총서를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들어 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호남지역 공동체 문화유산인 향약자료는 전국에서도 우수한 수준을 자랑하는데, 이러한 문화유산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기록하여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향약자료집』을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으며, 한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등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역시 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을 통해 웹제공을 기획하고 있다. ♣

민간기록문화통합검색플랫폼과 바로가기 QR코드



전라도 역사이야기 특별강연, 황현필 강사 초청

5월 29일, 제1회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 강연



한국학호남진흥원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5월 29일 오후 2시에 순천 전라남도 동부청사 이순신 강당에서 제1회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에는 『이순신의 바다』 『황현필의 진보를 위한 역사』 등의 저자이자 유튜브 구독자 110만 여명을 보유한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을 초청하여, 전라도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을 비롯하여, 전라도가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한 위상과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연은 영상으로 제작되어 한국학호남진흥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호남학TV'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영광 전주이씨 병사공 종가 조명 학술대회

9월 18일 영광문화예술의 전당 개최



2022년 한국학호남진흥원으로 기탁된 영광 전주이씨 병사공 종가의 고문헌 자료 526점을 바탕으로 한 학술대회가 9월 18일 영광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되었다.

전주이씨 병사공 종가는 효령대군을 파조로 영광 대마면에 자리를 잡은 문중이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서 큰 역할을 한 이척, 이란을 비롯하여 문과와 무과 등에서 약 240여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진흥원과 전주이씨 참의공·병사공 종가가 주관하고 영광군과 영광문화원이 후원한 학술대회를 통해 영광 지역의 자료들이 더 활발하게 조사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한국학 자료 수입과 국제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

11월 21일 UC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학호남진흥원은 11월 21일, 미주 지역에서 손꼽히는 동아시아 자료 소장처 중 하나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과 한국학 자료 협력 및 학술 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양 기관이 보유한 한국학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상호 교류를 통해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세계적인 학술기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한국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가치를 확산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다운 역사 인물 재조명 '이름 없는 별들, 다시 빛나다'

11월 27일,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한국학호남진흥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월 27일(목) 광주광역시청에서 '이름 없는 별들, 다시 빛나다'를 주제로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 광주를 빛낸 역사 인물들의 삶과 정신을 재조명하고 선양하는 뜻깊은 시간을 시민들과 함께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조선대 이정선 교수가 '광주다운 역사 인물 선양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였으며, 남도역사연구원 노성태 원장이 '양진여 의병장의 생애와 의병 활동'을, 현대사회연구소 안종철 소장이 '최종섭의 항일 독립운동'을, 연세대 국학연구원 신주백 교수가 '광주-전남의 근현대사와 정광호'를 각각 발표하였고, 좌장 전남대 장우권 교수는 전남교육연구소 김남철, 여성향일운동기념사업회 전남지회 이향희, 한국방송대학교 남기현과 종합 토론 시간을 마무리하였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소식

개원 8년 만에 한국학 자료 10만 점 수집

12월 4일 기자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학호남진흥원은 2018년 개원 이래 8년 만에 한국학 자료 수집 10만 점을 달성하였다. 10만 점 수집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4일 주요 문종과 기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의 국학진흥기관으로서 소장 규모로 두 번째에 달하며, 수집 자료중에는 호남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귀중한 기록문화유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호남에서 가장 오래된 무과 합격증인 '김수연 왕지'를 비롯해,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의 왕복 편지를 수록한 '양선생

문답'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에 포로로 끌려간 수은강항의 포로일기 '간양록', 1756년 나주 도래 풍산홍씨 문중에서 한글로 적은 '음식보' 등 호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료도 풍부하다.

현재 한국학호남진흥원이 보유한 자료 중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료는 총 18건 2,161점으로,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 12건 1,746점,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유산 1건 18점, 전라남도 문화유산자료 1건 265점, 향토문화유산 4건 132점 등이 있다.



서적, 간행물, 자료집 발간



한국학호남진흥원은 2025년 다양한 형태의 호남학 관련 출판물을 제작했다. 다음은 출판한 책의 목록이다. 『향약자료집』 2종 2책(장흥향약2, 임실향약1), 『금석문자료집』 2종 2책(장성, 곡성), 『호남선현문집국역총서』 3종6책(하서전집1~3, 놀재집1~2, 석천시집),

『의병자료총서』 1책(중효사구현실기, 남전공양세실기), 『간찰자료집』 1책(영암 구림 창녕조씨 문중의 옛 편지), 『누정자료집』 1책(나주 누정), 『농민운동 자료집 1책』(판결문으로 본 광주 전남 농민운동), 『2025 기증기탁 목록집』(국학자료 기증기탁목록집 3)

함께하는 호남학 연구

시민·예술가와 함께, 일상이 예술로!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은 시민의 창의적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2011년 1월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공공출연기관이다. 재단은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연·전시·전통 등 예술 전반에 걸친 창작 지원은 물론, 생활 속 문화 확산, 문화예술교육, 청년예술인 육성, 장애예술인 지원, 예술인 복지 향상 등 시민 모두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정책 연구와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광주의 문화정체성과 비전을 구체화하고, 문화도시로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외 및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광주의 문화적 잠재력을 세계와 공유하고, 지역의 가치를 확장하는 데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광주문화재단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공동체, 예술로 삶이 풍요로워지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광주가 지닌 예술적 상상력과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활발한 지역 문화예술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라남도문화재단



전남문화재단은 2009년 4월 22일 '전남문화예술재단'으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재단의 설립 목적은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성을 재고하고,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 지역문화 콘텐츠의 상품화를 통해 예향 전남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었다. 재단은 출범 초기부터 문화예술 정책 개발과 창작지원, 주요 축제 및 공연의 기획, 문화유산의 조사와 보존, 문화상품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재단의 주요 역할로는 지역 예술인을 위한 '순환적 창작지원 환경조성',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기반 마련,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로 도민의 생활 속 문화향유권을 향상하는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전남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의 브랜드화를 위한 '남도 문화예술 브랜드화 사업', 마한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고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마한역사문화권 가치 고증 사업' 등이 있다. 재단은 현재 도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문화복지 확산, 창작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의 문화 부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께하는 호남학 연구

전남의 미래와 정책 비전을 연구하는 전남연구원



전남연구원은 전남 지역발전에 대한 과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대안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정책 연구기관이다.

1991년 12월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한 이래, 2025년에는 ‘새로운 도약! 변화하는 연구원’으로 비전을 수립하고, ▲경제·산업, ▲공간·환경, ▲농·수·해양, ▲사회정책, ▲문화·관광 등 6실 2단 6센터 체제로 효율적인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매년 『정책연구』 보고서와 함께, 『전남정책연구』, 『JN1 이슈리포트』, 『JN1 인포그래픽』 등 지역 현안 및 이슈에 대응한 각종 간행물을 수시 발간하고 있으며,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협의회 등과 협약을 통해 공동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내외적 연구 교류와 협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전남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여 지역사회 밀착형 정보와 지식을 깊이 있게 다루며, 지역 성장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대안 제시 및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하는 광주연구원



광주연구원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광주광역시 출연 종합정책 연구기관이다.

1995년 6월 20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한 이후 광주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지역의 현안과 이슈에 대응하는 시정 밀착 및 문제해결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광주의 정책플랫폼’으로서 공간, 산업, 문화를 3대 특성화 연구분야로 정하고 정책 연구활동과 네트워크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있다.

‘미래전략연구실’, ‘인공지능(AI)정책연구센터’ 등을 통해서 주요 분야별 중장기계획 수립과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광주 Think Net’, ‘광주 정책 포커스’, ‘광주경제 브리핑’, ‘인포그래픽스’ 등을 수시로 발간해 지역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 작은연구’ 지원, ‘광주정책연구회’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메가트렌트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융복합적 지역정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기증·기탁 안내

훼손 및 멸실 위기에 처한 국학 자료가 아름답고 소중한 미래 유산으로 거듭납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보존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호남의 허브 기관으로서 고문서, 고서, 서화 등의 과학적 보존과 체계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중이나 개인이 기증·기탁한 자료는 분류, 목록, 보존 처리, 라벨링, 사진 촬영 등의 과정을 거쳐 최적의 자료 보존과 함께 웹서비스를 제공하여 호남 지역의 연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증·기탁 대상

호남 지역과 관련된 문중, 개인, 기관 및 단체 소장 자료
(고문서, 고서, 유물, 서화, 근현대 자료, 향토사 자료 등)

기증·기탁 절차

- 1 기증·기탁 문의
- 2 현지 조사 및 보존 상태 확인
- 3 기증·기탁 협의 및 신청서 접수
- 4 자료 수집 및 수장고 이관
- 5 기증·기탁 심의
- 6 기증·기탁 협약 체결
- 7 기증·기탁식 개최

기증·기탁 예우 및 특전

기증·기탁식 개최 및 보관 증서·감사패 증정	소독 및 향온 항습 시설을 갖춘 수장고에 보존	연구 자료 활용 및 호남국학종합DB 탑재
전시 도록 및 발간물 배부	각종 행사 초청	자료집 발간 및 학술 행사 개최 (다량 기탁)

기증·기탁 문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4층)
한국학호남진흥원
062-603-9630, 9633

호남 국학
알수록 깊어집니다
호남학 TV

